

제2차 위안부문제 한일 합동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

2023년 9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주관: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프로그램

등록 및 안내 - 14:00~14:20

《개회》 14:20~15:00

- 국민의례** 사회 : 요시다 켄지(저널리스트)
환영사 김학성(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대표)
축사 - 한국 :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일본 : 스키하라 세이시로(국제역사논전연구소 이사장)
미국 : J. 마크 램자이어(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영상)
경과보고 주옥순(위안부사기청산연대 대표)

《1부》 15:00~16:00

- 발표1** 니시오카 쓰토무(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3
【일본에서 시작된 위안부 문제】
발표2 류석춘(전 연세대학교 교수) 5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역사 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
발표3 야마모토 유미코(나데시코액션 대표)..... 19
【 ‘위안부=성노예’ 에 이용당하는 UN, ILO, UNESCO】

《기념사진 촬영 및 증언집 낭독》 16:00~ 16:20

-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기록영상〉 - 이용수의 증언 번복(2분)
〈증언집 낭독〉 박세원(국사교과서연구소 간사, 10분)
【내가 증인이다! - 위안부 김순덕(가명 김덕진)의 증언】

《2부》 15:00~16:00

- 발표4** 발표4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33
【조선인 위안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
발표5 발표5 마츠키 구니토시(국제역사논전연구소 수석연구원)..... 71
【위안부의 실태와 일본 학교 교과서의 문제점】
발표6 발표6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73
【한국 초중고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실태와 대책】

종합토론 및 폐회 - 17:20~18:00

プログラム

登録およびご案内 - 14:00~14:20

《開会》 14:20~15:00

国民儀礼	司会：吉田賢司(ジャーナリスト)
歓迎の辞	金学成(自由統一のための国家大改造ネットワーク代表)
祝辞 韓国	李栄薫(李承晩学堂校長)
日本	杉原誠四郎(国際歴史論戦研究所理事長)
米国	J.マーク・ラムザイヤー(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教授、映像)
経過報告	朱玉順(慰安婦詐欺清算連帯代表)

《1部》 15:00~16:00

発表1 西岡力(麗澤大学特任教授)	3
【日本から始まった慰安婦問題】	
発表2 柳錫春(元延世大学教授)	5
【慰安婦問題の司法化：歴史論争から法的闘争へ】	
発表3 山本優美子(なでしこアクション代表).....	19
【「慰安婦=性奴隷」に利用される国連、ILO、ユネスコ】	

《記念写真撮影と証言集の朗読》 16:00~16:20

記念写真撮影および休息

<記録映像> - 李容洙証言の変化(2分)

<証言集朗読>パク・セウォン(国史教科書研究所幹事、10分)

【私が証人だ！ - 慰安婦金順徳(仮名金徳眞)の証言】

《2部》 16:20~17:20

発表4 李宇衍(落星台経済研究所研究委員)	33
【朝鮮人慰安婦、どこからどうやって来たのか？】	
発表5 松木國俊(国際歴史論戦研究所上席研究員)	71
【慰安婦の実態と日本の学校教科書の問題点】	
発表6 金柄憲(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	73
【韓国小中高教科書の慰安婦記述の実態と対策】	

総合討論および閉会 - 17:20~18:00

【 축 사 】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동 심포지움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신 세 분의 연구자들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해 힘써온 마음의 동지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32년입니다. 그 사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이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성립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37-1945)에 일본의 경찰이나 헌병이 조선의 여자들을, 심지어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납치하거나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위안부에 관한 특별 학습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지적하여 날조된 역사라고 하겠습니까.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거나 시련에 봉착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원 위안부나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사람은 그가 종사한 대학으로부터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과학으로서 역사학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학은 아직도 전근대의 종족적 적대 감정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사학뿐이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무책임한 언론은 그러한 종족주의 언설을 끊임없이 증폭하고 재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출판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소는 당시 민간에서 제도적으로 영위되던 공창제가 전시기에 전선으로 이동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안소의 위안부는 민간 공창제의 창기나 작부와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위안부가 모집되는 방식이나 경로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가 모집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널리 이 사회의 구석에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래 지난 4년간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해 온 위안부 운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운동 주체인 정의연(구 정대협)의 회계 부정 사건도 큰 원인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위안부에 관한 교과서의 엉터리 서술이 고쳐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은 모두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만, 하루빨리 복구되어야 합니다. 동 재단의 남은 기금은 위안부 문제로 크게 손상을 입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선 지난 32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크게 오도된 과정과 전후 사정에 관한 국정조사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학술 심포지움이 그러한 길을 떠나는 한국과 일본의 동지들에게 큰 힘과 약속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

【 祝 辞 】

李榮薫(李承晩学堂校長)

日本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祝います。この大会に参加するために、日本から来られました3人の研究者を歓迎します。ここに集まった韓国と日本の皆さん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理解と解決のために努めてきた心の仲間たちです。

日本軍慰安婦問題が発生してからすでに32年です。その間、韓国と日本の友好関係はこの問題によって深刻な損傷を受けました。少なくない歳月が流れ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ではまだこの問題に対する正しい認識が成立していません。まだほとんどの韓国人はアジア・太平洋戦争期(1937-1945)に日本の警察や憲兵が朝鮮の女性たちを、さらに若い女の子たちまで、強制的に拉致したり連行して慰安婦にしたと知っています。慰安婦に関する中・高校歴史教科書がそう教えています。小学校では慰安婦に関する特別学習が施行されたりもしました。

しかし、これは本当ではありません。率直に指摘して捏造された歴史と言います。何人かの勇気のある学者たちがこれらの事実を指摘したが、大きな試練に遭遇しました。一部の人は、元慰安婦や彼らを支援する団体から名誉毀損の疑いで訴えられた。何人かは彼が従事した大学から追放されたりもしました。完全に埋葬された演芸人もいました。

このような過去30年間の歴史を振り返ると、この国で真の意味の近代科学として歴史学はまだ成立していないことがわかります。この国の歴史学はまだ前近代の種族的敵対感情に深く取り込まれています。歴史学だけでなく、すべての人文・社会科学がそうです。また、この国の無責任な言論は、そのような種族主義の言説を絶えず増幅して再生してきました。

去る2019年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歴史で一つの大きな分岐点でした。私は同僚の研究者と共に出版した「反日種族主義」という本で、日本軍慰安所は当時民間で制度的に営まれていた公娼制が戦時期に戦線に移動したことを明確にしました。慰安所の慰安婦は民間遊廓の娼妓と変わらない身分でした。慰安婦が募集される方法や経路は、民間の娼妓が募集されるそれと少し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

私たちのこのような主張は韓国社会に大きな波紋を起こしました。その波紋は今も消えず、ますます広くこの社会の隅にまで広がっています。以来、過去4年間、両国の友好関係を阻害してきた慰安婦運動は大きく萎縮しました。運動主体である正義聯の会計不正事件も大きな原因でしたが、それに劣らず普通の国民が慰安婦問題の真相を少しずつ知り始めたというのも重要な原因でした。

しかし、私たちが行くべき道はまだ遠くて険しいです。慰安婦に関する教科書のでたらめな記述は直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全国で建てられた慰安婦少女像は、すべて一日早く撤去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両国政府が合意して設置した和解治有財団は、過去の文在寅政府によって解散されましたが、一日早く復旧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財団の残りの資金は、慰安婦問題で大きく損なわれた両国間の友好関係を癒す事業に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過去32年間、日本軍慰安婦問題が大きく誤解された過程と前後事情に関する国政調査次元の真相究明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このすべてがいつ行われるのか私たちは知りません。しかし、私たちは希望を持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今日のこの学術シンポジウムがそのような道を去る韓国と日本の同志たちに大きな力と約束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

2023年9月5日

【 축 사 】



스기하라(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1941년 히로시마현 출생.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쇼사이대학 교수, 무사시노대학 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에 「교육기본법, 그 제정 과정과 해석」 증보판(문화서방 하쿠분칸), 「법학의 기초이론, 그 법치주의 구조」(쿄도출판), 「교육기본법의 성립-인격의 완성을 둘러싸고」 신정판(분카쇼보 하쿠분샤), 「일본 신도불교와 정교분리-그리고 종교교육」 증보판(분카쇼보 하쿠분샤), 「일미 개전 이후 일본 외교 연구」(아키쇼보 출판, 한국어판·중국어판·영어판도 출간), 「스기하라 치우네와 일본 외무성, 스기하라 치우네는 왜 외무성으로부터 쫓겼는가」(다이쇼출판 영어판도 출간), 「보수의 사명」(지유샤) 등.

우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의 한일 연구자가 모여 사상 최초의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큰 경하의 뜻을 표합니다. 공교육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기술을 삭제하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주재하신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께 일본 측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1973년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간행하고 1982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하였다는 거짓 기사를 쓰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쌍방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군위안부’의 ‘강제 연행’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결코 성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술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한일의 우호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주권을 회복한 지 약 75년, 일본도 미군에 의한 점령이 해제되어 주권을 회복한 지 약 70년, 양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손을 잡고 세계 및 인류의 과제 해결에 이바지해 나가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곁에는 늘 공격적이고 강권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법의 지배에 근거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의 법이라는 것은, 위정자가 인민을 대상으로 제멋대로 정해 놓고 멋대로 적용하는 지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자유 및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의 지배’라는 관념 하에 있는 ‘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양국 간에 목젯가시가 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과서로부터 ‘위안부’의 기술을 없애자고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더욱 심화하여 세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

【 祝 辞 】

杉原誠四郎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会長)

昭和16年 (1941年)、広島県生まれ。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修士課程修了。城西大学教授、武蔵野大学教授を務めた。

主著に『教育基本法 その制定過程と解釈・増補版』(文化書房博文社)、『法学の基礎理論 その法治主義構造』(協同出版)、『教育基本法の成立-「人格の完成」をめぐって- 新訂版』(文化書房博文社)、『日本の神道・仏教と政教分離-そして宗教教育 増補版』(文化書房博文社)、『日米開戦以降の日本外交の研究』(亜紀書房 韓国語版・中国語版・英語版も出版)、『杉原千畝と日本の外務省 杉原千畝はなぜ外務省を追われたか』(大正出版 英語版も出版)、『保守の使命』(自由社)など。

まずは、慰安婦は性奴隷でないという立場の韓日の研究者が集まり、史上初の韓日共同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に当たり、大なる慶賀の意を表します。公教育の教科書から慰安婦の記述を削除するため、このシンポジウムを主宰された韓国の研究者集団の皆様に、日本側を代表して厚く感謝の意を表します。

振り返れば、1973年に日本の毎日新聞記者が『従軍慰安婦』なる凶書を発行し、1982年に日本の朝日新聞が慰安婦を強制連行したという嘘の記事を書き、慰安婦問題は韓日双方において猖獗を極めました。

しかし現在は「従軍慰安婦」の「強制連行」なるものは存在せず、性奴隷ではなかったことが完全に証明され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教科書には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とする記述があり、韓日の友好を妨げています。

韓国は、主権を回復して約75年、日本もアメリカ軍による占領を解除されて主権を回復して約70年、両国は現在、アジアにおける、自由と人権を守る強力な民主主義国となっています。両国は手を取り合って、世界における人類の課題の解決に貢献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になっ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傍らには、つねに力の限り横暴に振る舞う中国が存在しています。中国は現在、法の支配に基づく民主主義国ではありません。中国での法というのは、為政者が人民に向けていかようにも定め、いかようにも適用するところの、支配の道具としての法でしかありません。しかし我々民主主義国の法は自由を守り、人権を守り、民主主義を守るための法です。すなわちそれは「法の支配」という観念のもとにある法です。

韓国と日本はアジアの強力な民主主義国として、ともに手を携え、世界の人類の発展に貢献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日はそうした両国のあいだで喉の棘となっている慰安婦問題で、歴史的事実に基づき教科書から慰安婦の記述を排除していこうというシンポジウムであります。これを十分に成功させて、韓国と日本の友好をさらに深め、そして世界に貢献していくよう努めていしましょう。

경과보고



주옥순(위안부사기청산연대 대표)

1953 경북 포항 출생. 2000 사단법인 한국이주민복지회 소장.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2009 ~2023 현재 전국엄마부대 상임대표. 2010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2012 숙명대학교 행정학박사 수료. 2013 대구대학교사회복지정책과 객원교수.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2021~현재 자유통일당 전국여성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안부 사기청산연대’ 대표이자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朱玉順)입니다.

저는, 과거 2009년부터 한일관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현재까지도 좌우가 극한으로 대치중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엄마부대’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이때부터 윤미향과 법적 싸움으로 집행 유예까지 받으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일 선동의 중심축이던 이 위안부 문제에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수시로 북한을 방문한 전력이 있던 친북성향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

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위안부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9년부터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서 싸웠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동대위’나,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위안부법폐지 국민행동’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초에, 드디어 뜻을 같이 하는 9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위안부 사기청산 연대’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한일 외교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었던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국제사기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흉물 동상을 만들었던 김운성·김서경 작가부부는 13세~15세의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11살짜리 어린 딸까지 모델로 세워 이 위안부상을 제작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오로지 반일 선동용 거짓 조형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 거짓 조형물을 앞세워가며 이 동상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여 벌써 국내에 150개, 해외에도 30개가 넘게 설치하였고 이 동상을 통해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거짓 동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는 커녕, 오히려 저들에 의해 강요된 반일 적개심과 원한, 그리고 과거 치욕스런 우리 역사만을 재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날조된 위안부 운동과 선동에 저항하기 위해 탄생한 우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 회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며 위기 시에는 언제나 모두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経過報告】

朱玉順(「慰安婦詐欺清算連帯」の代表)

1953慶尚北道浦項生まれ。2000社団法人韓国移住民福祉会代表。2009~2023現在、全国ママ部隊常任代表。2010公教育再生保護者連合共同代表。2012淑明大学行政学博士修了。2013大邱大学校社会福祉政策科客員教授。2020第21代国会議員選挙出馬。2021~現在、自由統一党全国女性委員長。

こんにちは。

慰安婦 詐欺清算連帯の代表そして「お母さん部隊」の代表の朱玉順です。

私は、過去2009年から韓日関係の危険性を認識し、現在までも左派右派が極限に対峙している大韓民国を守るために「お母さん部隊」という市民団体を結成し、この時から尹美香氏との法的争いが始まり、執行猶予まで受けながら闘ってきました。

文在寅 左派政権の反日扇動の中心軸だったこの慰安婦問題には、過去の金大中・盧武鉉政権時代に随時北韓を訪問した前歴のある親北朝鮮の女性が含まれていました。

そのため、これは単なる慰安婦問題にとどまる事案ではない重大な問題だと思いました。そのような渦中、2019年度からこの慰安婦問題の先頭に立って闘ってきた代表的な市民団体「反日銅像真実究明共対委」や、今も全国を巡回しながら慰安婦問題の真実を訴えている「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といった様々な市民団体との連携と協力の必要性を切実に感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以後、2022年当初に、ついに志を同じくする9つの市民団体が集まり「慰安婦詐欺清算連帯」という名前で公式発足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皆様！

これまで30年以上も韓日外交を破綻の境地に追いやった慰安婦問題は明白な国際詐欺でした。

「平和の少女像」という凶物銅像を作ったキム・ウンソン作家夫婦は、13歳~15歳の幼い少女たちが慰安婦だったと主張し、自分の11歳の幼い娘をモデルにしてまでこの慰安婦像を制作しましたが、これは歴史的事実にも全く符合しないただの反日扇動のための偽りの造形物に過ぎないのです。

ところが、正義記憶連帯ではこの偽りの造形物を前面に掲げ、この銅像こそ「世界平和と女性の人権」を象徴するものだとして美化し、すでに国内に150個、海外にも30個以上設置し、この銅像を通して日本に対する漠然とした敵意心と怒りを誘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しかし、この「平和の少女像」という偽りの銅像により私たちは「平和」ではなく、むしろ彼らによって強要された反日敵愾心と恨みだけを誘発させるとともに、むしろ我が国の過去の恥辱的な歴史だけを再確認することになるだけなのです。

このような彼らの捏造された慰安婦運動と扇動に抵抗するために結成した私たち「慰安婦詐欺清算連帯」の会員は今後も変わることなく、平素各々の立場で真実と正義を正すために最善を尽くして闘い、危機的時期には常に皆が一つになり、力を合わせて共に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致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2차 위안부문제 한일 합동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

제 1 부

(발표1) 일본에서 시작된 위안부 문제

니시오카 쓰토무(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발표2)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역사 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

류석춘(전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3) '위안부=성노예' 에 이용당하는 UN, ILO, UNESCO

야마모토 유미코(나데시코액션 대표)

(発表1) 日本から始まった慰安婦問題

西岡力(麗澤大学特任教授)

(発表2) 慰安婦問題の司法化: 歴史論争から法的闘争へ

柳錫春(元延世大学教授)

(発表3) 「慰安婦=性奴隷」に利用される国連、ILO、ユネスコ

山本優美子(なでしこアクション代表)

《발표1》



니시오카 쓰토무(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전공은 남북한 지역연구. 현 모랄로지도덕교육재단 도덕과학연구소 교수 및 역사연구실장, 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구출회 전국협의회 회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유학, 쓰쿠바대 대학원 지역연구과 수료, 외무성 주한국 전문직원, ‘겐다이 코리아’ 편집장, 도쿄기독교대 교수 등을 거쳐 현직. 제30회 ‘세이론 대상’ 수상. 저서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편저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한일 ‘역사인식 문제’ 40년』, 『나의 체험적 코리아론』 등 다수. <※은 한국어 번역서도 출간>

西岡力(麗澤大学特任教授)

専攻：韓国・北朝鮮地域研究。現職：モラロジー道德教育財団道德科学研究所教授・歴史研究室長、麗澤大学特任教授、「救う会」全国協議会会長、歴史認識問題研究会会長。 韓国・延世大学留学、筑波大学大学院地域研究科修了、外務省在韓国専門職員、「現代ユリア」編集長、東京基督教大学教授などを経て現職。第30回「正論大賞」受賞。著書に『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編著『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日韓「歴史認識問題」40年』、『わが体験的ユリア論』など多数。<※は韓国語訳も出版>

【발표문】 별도 배포

《발표2》



류석춘(전 연세대학교 교수, 광화문연구소 소장)
柳錫春(元 延世大學校 教授, 광화문연구소 소장)

A poster for an event. On the left is a partial view of the speaker, Ryu Seok-chun, speaking into a microphone. The right side is a black background with white and yellow text. The main title is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Legalization of the Wianbu Issue). Below it is the subtitle '역사 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 (From historical debate to legal dispute). At the top right, the event details are listed: '제2차 한일합동심포지움' (2nd Korea-Japan Joint Symposium), '2023년 9월 5일, 2pm' (September 5, 2023, 2pm), and '한국프레스센터' (Korea Press Center). At the bottom right, the speaker's name is listed: '류석춘 (전 연세대학 교수)' (Ryu Seok-chun, former Yonsei University professor). A small logo '뉴데일리' is visible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speaker's image.

제2차 한일합동심포지움
2023년 9월 5일, 2pm
한국프레스센터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역사 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

류석춘 (전 연세대학 교수)

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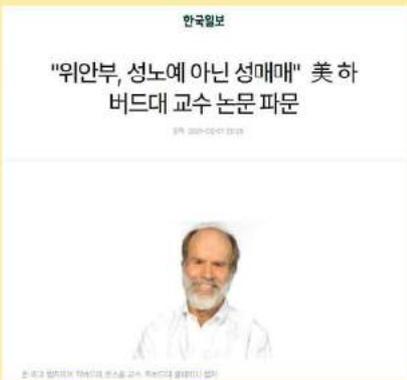
램자이어 교수와의 인연은 동병상련 ラムザイヤー教授との縁は同病相憐

오늘 발표는 램자이어 교수가 제이슨 교수와 공동으로 출간할 영어로 된 위안부 책에 발표자가 기고한 서문 (Foreword) 을 기초로 합니다. 램자이어 교수가 미국에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5월 램자이어 교수가 메일로 저에게 Foreword 를 써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전혀 망서리지 않고 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연세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식민지 역사를 두고 토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급기야 지금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램자이어 교수를 알게 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の発表は、ラムザイヤー教授とモーガン教授が共同で出版する予定の慰安婦関連の本に、私が書いた前書きを基にしています。ラムザイヤー教授が米国で私と似たよう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ので、私は今年の5月、彼가 메일で本の前書きを書いてほしいと頼んできた時、迷わず応じました。

ご存知のように、私は延世大学の講義で、学生たちと植民地の歴史をめぐって討論したことが問題となり、挙げ句の果てに名誉毀損刑事事件の被告人として裁判を受けています。次の章からはラム자이어教授と出会った過程と、私が経験したことを一つ一つ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일보

"위안부, 성노예 아닌 성매매" 美 하버드대 교수 논문 파문

김민서 기자



한국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하버드대 명예교수



SBS 뉴스

하리수,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분노 "위안부가 성매매? 인간이 돼라"

김민서 기자



가수 최리수가 위안부를 성매매라고 표현한 하버드대 교수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2021 February

[산케이신문 칼럼]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과 싸우는 지식인들 출현... 일본도 이들과 연대를 위안부 문제 거짓말 일소에 나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wacka@ky@gmail.com

등록 2021.03.02 15:03:37



정지 : 외교 | 위안부

"위안부, 성노예 아닌 성매매" 하버드대 교수는 "큰 의미"

중앙일보 | 2021.03.01 18:43 | 2021.03.16 14:57

고석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며,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최근 일본 언론들 등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장본인은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다. 그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법·경제 관련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앤에코노믹스'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3월 출간 예정)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두고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동의를 받아 논문 요약문을 공개하면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J. Mark Ramseyer¹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29 August 2020
Received in revised form 28 October 2020
Accepted 28 November 2020
Available online 1 December 2020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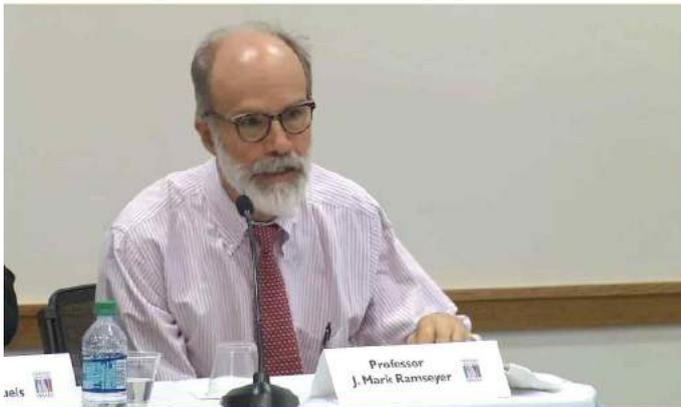
Prostitution
Indentured servitude

ABSTRACT

The protracted politic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wartime brothels called comfort stations obscures the contractual dynamics involved. These dynamics reflected the straightforward logic of the credible commitments so basic to elementary game theory. The brothel owners and potential prostitutes faced a problem: the brothel needed credibly to commit to a contractual structure (i) generous enough to offset the dangers and reputational damage to the prostitute that the job entailed, while (ii) giving the prostitute an incentive to exert effort while working at a harsh job in an unobservable environment.

Realizing that the brothel owners had an incentive to exaggerate their future earnings, the women demanded a large portion of their pay upfront. Realizing that they were headed to the war zone, they demanded a relatively short maximum term. And realizing that the women had an incentive to shirk, the brothel owners demanded a contractual structure that gave women incentives to work hard. To satisfy these superficially contradictory demands, the women and brothels concluded indenture contracts that coupled (i) a large advance with one- or two-year maximum terms, with (ii) an ability for the women to leave early if they generated sufficient revenue.

© 2020 Elsevier Inc. All rights reserved.



J.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Harvard Law School

J. マーク・ラムザイヤー
ハーバード大学法科大学院
三菱日本法学教授

ジェイソン・モーガン
麗澤大学国際学部准教授

Jason Morgan,
associate professor,
Reitaku University in
Kashiwa, Japan



Forthcoming

amazon Deliver to Republic of Korea Books Search Amazon

All Today's Deals Customer Service Registry Gift Cards Sell

The Comfort Women Hoax: A Fake Memoir, North Korean Spies, and Hit Squads in the Academic Swamp

by J. Mark Ramseyer (Author), Jason M. Morgan (Author)

Kindle \$24.99 Hardcover \$32.99

Read with Our Free App 1 New from \$32.99

Pre-order Price Guarantee. Terms

Both of the authors found themselves savagely "canceled" by their peers in Japan follow the Woke line on the World War II "comfort women." Contrary to the past women were not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And the notion that they were perpetrated by a Japanese communist author in the 1980s. Any serious Japanese understands this, and many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understand it as well. hyper-politicized humanities departments that they continue to cling to this 19

Buy new: \$32.99

Delivery December 12 - 19

Or fastest delivery December 7 - 12

Deliver to Republic of Korea

This title will be released on December 5, 2023.

Qty: 1

Pre-order now

2019 September 17

Class Topic: Colonial Modernity (1910-1945)

- Farmlands were sold
- Rice was traded
- Labor was migrating to Japan under Contract (Drafted only for the last 9 months, still paid)
- Comfort Women Issue
(정신대挺身隊 vs 위안부慰安婦)

Korean Dictionary 韓国語辞書 (韓英)

August 27, 2023 (searched)

NAVER 사전 파파고 오픈사전 PRO 참여번역 지식백과

사전출 영어 국어 한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영 더보기

영어사전 정신대

전체 단어·속어 뜻풀이 예문 영영사전

정신대 挺身隊
comfort women, the group of young women taken to Japanese rape camps during World War II
ET-house 능률 향상시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기관·단체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두산백과 두메디아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출처: 연합뉴스 | 2020.05.27 11:55 | 2020.05.27 20:05 | 1992건

- 관련기사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적 1개월 중징계... 柳 기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연세대학교 2015-2016년 1학기

연세대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

출처: 연합뉴스 | 2019-10-10 19:24

#류석춘은 사과하라 #류석춘을 파면하라

세계일보

"교육자 자격 없다"... 류석춘 성토장 원 '우호사학'

출처: 세계일보 | 2020.05.27 11:55

유석춘은 진짜 사범 사립입니다!

2019 September ~ 2020 Spring

아시아경제

연대 출신 의원들 "류석춘 파면하라...모교에서 물상식 용납못해"

출처: 아시아경제 | 2020.05.26 21:34

더불어민주당 김성현(법학 83) 박법계(법학 85) 송영길(경영 81) 송옥주(신방 83) 안호명(법학 84) 이상호(국문 81) 우원식(토목 76) 유동수(경영 81) 윤후덕(사회 76) 이규희(법학 81) 조정식(건축 82), 민주당화당 활주홍(정의 73), 바른미래당 신용현(물리 79), 정의당 김중대(경제 84)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이 2018년 4월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3차 남북정상회담 사진 31장을 2018년 4월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朝鮮中央通信が、2018年4月に開かれた文在寅大統領と金正恩の「第3回南北首脳会談」の写真31枚を、2018年4月29日に公開した。連合ニュース



2019 August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종료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검감찰청
전문공보관 박재익
전화 02-3270-4394 / 팩스 02-3270-4310

보도자료
2020. 10. 29.(목)

제목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 ☑ 관련사실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유형,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금일(10. 29.) 「○○대학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및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A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B단체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 AOO(○○대학교 교수)

2 공소사실 요지

- '19. 9. 19. ○○대학교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때문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 위 강의 중 'B단체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 위 강의 중 'B단체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B단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II 수사 경과

- '19. 9. 23. C시민단체, 서울서부지검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
- '19. 10. 1. B단체, 서울서부지검에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
- '20. 3. 31. 서대문경찰서, 사건 송치
- '20. 4. -10. 피의자 조사, 관련자료 확보, 판례 및 법리 검토 등
- '20. 10. 29.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모욕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III 향후 계획

-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음 ☞

2020 October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挺身隊問題
対策協議会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6권.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シリーズ全6巻.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2권.

「中国に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シリーズ全2巻.

1993~2014



이용수 증언
李容洙の証言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I』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証言集I」

(한울) (ハンウル)

p. 124



분순이는 어쩔수 없이...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새벽, 분순이가 우리집 봉황을 두드리며 "가만히 나오나라" 하며 소곤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 통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을 입고 계단을 끌고 있었다. 가서 보니 갱가에서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였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통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통이를 살짝 들쳐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냥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 나까지 함께 처녀가 모두 다섯 명이었다.
그 길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갔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았다. 경주에 가서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 여관 앞 개울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산비탈에 보라색 꽃이 한송이 피어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이어서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니까 도라지꽃이라고 했다. 거기서 이를받인가를 지냈는데 또 여자
124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赤いワンピースと革靴が見えた。それをもらい幼心にどれほど喜んだかわからない。それでつい他のことも考えず、気軽について行くようになった。」

Professor's 'Comfort-Women' Lecture Gets Him Indicted—And Sparks Debate on Academic Freedom

Lew Seok-choon's comments about World War II-era sex slaves led to defamation charges and put him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classroom speech

By Timothy J. Minchin and Dan Voth
Aug. 13, 2020 7:09 AM ET



Lew Seok-choon, speaking to reporter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2019, taught that South Korean women in Japan's World War II-era brothels were doing the work that would be considered 'heartbreaking'.

[Bookmark] In South Korea, Lew Seok-choon Case Sparks Crisis in Academic Freedom

Professor's comments about World War II-era sex slaves led to defamation charges and put him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classroom speech



How a Class Debate on Comfort Women Turned into a Big South Korean Witch Hunt

Professor's comments about World War II-era sex slaves led to defamation charges and put him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classroom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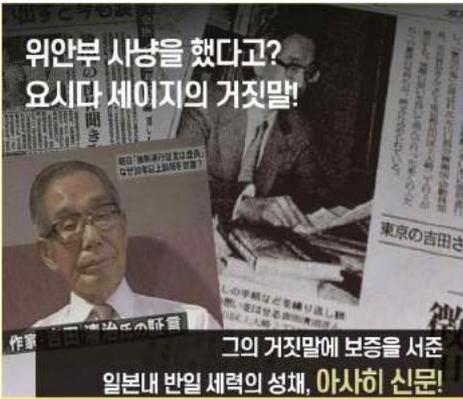
韓国における学問の自由の危機について
一 反日偏見と、歴史への歪曲
1 反日偏見と、歴史への歪曲
2 反日偏見と、歴史への歪曲

歴史認識問題研究
第10号
「慰安婦問題」の歴史認識と「歴史の真相」の追求
「慰安婦問題」の歴史認識と「歴史の真相」の追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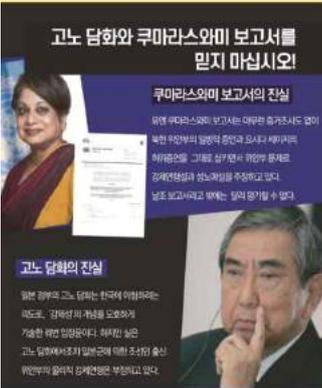
週刊新潮
重なる証言の裏側
売春婦の私は刑
週刊新潮

月刊 Hanada
C・ハミルトン 日本を驚かす
習近平帝国 目に見えぬ侵略
「慰安婦事件」の真相

2013
2019, 2020
2021
2022
慰安婦と戦場の性
反日 種族主義 種族主義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
위안부 문제의 진실
수요일
반란
위안부 문제의 진실
위안부 문제의 진실



미디어워치의 활약
韓國メディアウオッチの活躍



미디어워치

[단독] 대법원 “정대협을 ‘중북(從北)’이라 부를 수 있다” 본지 최종 승소

대법원 정대협의 상고 기각, 정대협 중북 관련 18개 정점서 전부 미디어워치 손 들어준 사법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as@ty@gmail.com 등록 2020.02.27 16:43:28

이제 정대협과 그 대표 윤미향 씨를 ‘중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명)의 유미향 상임대표를 ‘중북(從北)’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거가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워치

나시야가 스트무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 논란, 머릿수로 진리 정할 것인가?”

대법원이 나시야가 스트무의 위안부 논문 논란을 둘러싸고 제기한 위안부 문제의 진리를 머릿수로 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진리를 머릿수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as@ty@gmail.com 등록 2021.03.02 15:20:37

미디어워치

[산케이신문 칼럼]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과 싸우는 지식인들 출현 - 일본도 이들과 연대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 일소에 나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as@ty@gmail.com 등록 2021.03.02 15:20:37

▲ 산케이신문(編輯新聞) 2021년 3월 1일자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야 담평

2020 ~ 2021

미디어워치

[산케이신문 칼럼]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과 싸우는 지식인들 출현 - 일본도 이들과 연대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 일소에 나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as@ty@gmail.com 등록 2021.03.02 15:20:37

▲ 산케이신문(編輯新聞) 2021년 3월 1일자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야 담평

THE FACT

프린트하기 취소

2022 November

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TF 사진관]

입력: 2022.11.23 12:32 / 수정: 2022.11.23 15:14



檢察、
 「慰安婦売春発言」
 柳錫春に
 懲役1年6ヶ月
 求刑

21

사건발생 1년을 넘긴 2020년 11월 검찰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공판 끝에, 2023년 3월 22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재판을 공전시킨다고 선언.

事件発生から1年が過ぎた2020年11月、檢察が「虚偽事実による名誉毀損」の疑いで起訴して以来、これまで十数回の公判の末、2023年3月22日の裁判を最後に裁判官は次のような**二つの理由**で裁判を空転すると宣言。

22

- 1) 엇비슷한 경우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박유하 교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1심 무죄, 2심 벌금 1천만원, 대법원 계류 6년째),
- 2)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

- 1) 似たような事件として必ず参考にするべき、**パク・ユハ教授の事件**に対する最高裁確定判決がまだ出ていないこと(パク氏は1審無罪、2審罰金1千万ウォン、最高裁係留6年目)
- 2) 事件を起訴した検事が、当然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慰安婦強制連行の証拠」**を未だ提出していないか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真理があなた達を自由にする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던 검찰은 어디에?
'公訴維持に万全を期すと'言っていた検察はどこに?

【발표3】



야마모토 유미코(국제역사논전연구소 소장)

쵸치대학교 외국어학부 비교문화학과 졸업. 현 나데시코 액션 대표, 위안부진실국민운동 간사장,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소장. 저서에 「여성이 지키는 일본의 자랑-'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호소하는 나데시코 활동록」(세이린도, 2014년), 「UN이 세계에 퍼트린 '위안부=성노예'의 거짓말-제네바 UN파견단 보고」(공저, 지유샤, 2016년) 「여성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공저, 지유샤, 2018년).

'위안부= 성노예'라는 인식에 이용된 UN, ILO, UNESCO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인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인 여러분! 정의와 진실을 중시하는 양국의 애국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최자분들, 준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는 ‘강제연행 된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UN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의 국제기관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위안부는 성노예’를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UN, ILO, 그리고 UNESCO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UN 그리고 ILO에서는 전문가가 철저히 조사와 연구를 해서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자료에 근거한 조사나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좌파 NGO와 노동조합이 UN과 ILO에 보낸 의견서의 영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좌파 단체들의 ‘고자질’ 결과입니다. 오랜 세월 UN과 ILO에 보고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보는 좌파 단체의 의견뿐이었습니다. 편향된 정보나 거짓말을 바탕으로 UN 위원회로부터 권고가, ILO에서는 견해가 발표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UNESCO입니다. 지금 UNESCO에서는 ‘위안부는 성노예’로 정의한 기록물이 등재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UN, ILO, UNESCO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UN~ 인권조약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안부문제

UN에서 ‘위안부는 성노예’ 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1992년에 인본인 토츠카에츠로우 라는 변호사가 ‘성노예’라고 표현한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후지키순이치씨가 토츠카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츠카씨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노예’라고 말했더니 주목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노예’의 시작은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입니다.

1996년 UN 특별보고자인 쿠마라스와미씨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성노예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군

의 성노예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반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반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UN 인권위원회는 불충분한 사실 인식과 잘못된 국제법 해석에 근거한 이 보고서를 부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서적으로부터 기술(記述)을 인용해, 근거가 되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접 듣지 않고 구 위안부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수용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극히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법적인 주장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아 잘못이다.”

이 반론서는 훌륭한 내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 번 배포했다가 비판이 두려워 회수한 뒤 비공개로 해 버렸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반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UN에는 인권조약에 관한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는 성노예’, ‘구제조치를 취하라’,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쳐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권규약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금지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취급되어 ‘종합소견’에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제출된 NGO 의견서를 조사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해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는 십 수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년에 2~3회에 한 달 정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약 170개국 중 10개국 정도의 국가를 심사합니다. 한 나라에 대해 수십 가지 항목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안부 문제’만 자세히 조사 연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NGO 의견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좌파 NGO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일본 여자 차별 철폐 조약

NGO 네트워크’, ‘국제엠네스티’, ‘신일본 부인의 모임’ 등입니다. 한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도 열심히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NGO의 의견서를 위원이 참고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위안부는 성노예의 피해자다’라는 권고를 받을 당시 일본 정부는 뭐라고 회답했는가.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문제다.”

“위안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해 왔다.”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구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총리가 공식 사과 편지를 보냈다.”

이런 대답으로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위원회의 견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야 일본 정부는 UN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는 성노예’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외무성 공식 사이트에서 ‘성노예, 강제연행, 20만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산된 성노예의 거짓말은 좀처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일본 정부의 대응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2. ILO 강제노동협약의 위안부 문제

다음으로 ILO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LO에서도 위안부는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ILO 연례 보고를 1994년판부터 2022년판까지 조사했습니다. 알게 된 것은 ILO 위원회도 UN 위원회도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ILO에는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ILO연차 보고를 발표합니다. 위원들은 매년 1회 모여 3주 정도면 ILO회원국 187개국이 조약을 지키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각국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처음으로 오사카 교원조합이 ILO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위안부는 전시 성노예 피해자다’, ‘일본은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였다’라는 의견서입니다. 도대체 누가 먼

저 ILO에 호소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 ‘갑자기 떠올라서’ ‘성노예’라고 말한 토츠카에츠로 변호사입니다.

1996년 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위안부 문제와 전시 강제노동에 대해 ILO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의견서를 보낸 곳은 한국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노조의 의견에 따라 ILO는 연차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 구제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국이 입은 손해와 고통을 인정하고 유감과 반성을 거듭해 왔다.”

이래서는 마치 일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2019년에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ILO 위원회에 대해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을 때 바로 반박했어야 했습니다.

3. UNESCO ‘세계 기록유산’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

마지막으로 UNESCO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ESCO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물(문서나 비석, 지도, 제도, 회화, 음악, 영화, 테이프, 사진 등)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왕조 왕실 옥새와 책봉서 컬렉션’(2017년), 일본의 ‘동사백합문서’(2015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로 정의한 신청으로 9개국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9개국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티모르와 영국이며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신청한 기록물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자료,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 자료 등 2,744점이나 됩니다. 자칭 구 위안부들의 활동 기록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의 등록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대항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

청 제목은 ‘위안부와 일본군의 규율’입니다. 일본군은 규율을 지켜 위안부를 접촉하고 있었으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신청입니다.

‘성노예’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대립된 두 가지 신청이 있기 때문에 2017년 UNESCO는 ‘양측이 논의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의 소리’ 신청 그룹과 저희들 ‘위안부와 일본군의 규율’을 신청한 그룹이 위안부에 관한 신청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논의 일정이나 조건을 조율 중입니다.

‘위안부의 소리’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일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협력해서 이 UNESCO ‘위안부=성노예’ 등재를 반드시 막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는 첫 번째 일본사람이 불을 지폈습니다. 불은 UN에서 국제사회로 번졌고 한국도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주눅 든 일본 정부는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UN에서 불을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사람입니다.

위안부는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위안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국제기구를 통해 거짓말이 확산되면서 외교 문제와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교과서에 거짓말이 기술되어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일본 어린이들에게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구 위안부분들은 이런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심포지엄이 미래의 한일관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発表3】

山本優美子 (国際歴史論戦研究所 所長)

上智大学外国語学部比較文化学科卒業。なでしこアクション代表。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幹事長、国際歴史論戦研究所所長。書籍に『女性が守る日本の誇り-「慰安婦問題」の真実を訴えるなでしこ活動録』(青林堂、2014年)、『国連が世界に広めた「慰安婦=性奴隷」の嘘-ジュネーブ国連派遣団報告』(共著、自由社、2016年) 『女性だからこそ解決できる慰安婦問題』(共著、自由社、2018年)。

「慰安婦 = 性奴隷」に利用される国連・ILO・ユネスコ

韓国を愛し誇りに思う韓国の皆様、日本を愛し誇りに思う日本の皆様。正義と真実を重んじる両国の愛国者が、慰安婦問題を糺す為に今日ここに集まりました。私は皆様と共に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できることを大変光栄に思います。主催者の方々、準備をしてくださった方々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さて、「日本軍慰安婦は、強制連行された性奴隷」と主張する人たちは、「国際連合やILO (国際労働機関) の国際機関が認めている。だから事実だ」といいます。本当でしょうか？

本日、私は「慰安婦は性奴隷」を広めたい人たちによって利用される国連、ILOそしてユネスコ (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 について発表します。

最初に、皆さんに知ってほしい、重要なことを二つ申し上げます。

一つめは、多くの人は、「国連とILOでは、専門家が徹底的に調査と研究をして、慰安婦は性奴隷だと結論を出したのだろう」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実は全く違います。一次資料に基づく調査や研究はしていません。すべて左派のNGOや労働組合が、国連やILO

Oに送った意見書の影響です。簡単に言いますと、左派団体の「告げ口」の結果です。長年、国連とILOに届い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情報は左派団体の意見だけでした。偏った情報や嘘の話をもとにして、国連の委員会から勧告が、ILOの委員会からは見解が発表されてきたのです。

二つめの重要なことはユネスコです。今、ユネスコでは「慰安婦は性奴隷」と定義する記録物が登録さ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態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絶対に阻止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では、これから、国連、ILO、ユネスコについて順番にお話しします。

1. 国連 ~ 人権条約の委員会における慰安婦問題

国連において、「慰安婦は性奴隷」という表現はいつから始まったのでしょうか。それは、1992年に日本人の戸塚悦朗（とつか・えつろう）という弁護士が「性奴隷」と表現したのが始まりです。私たち研究所の藤木俊一氏が、戸塚氏にインタビューしたことがあります。その時、戸塚氏は慰安婦を性奴隷と表現したのは「勘だよ」と言ったそうです。「性奴隷」と言ったら注目を浴びたと、自慢げに話したそうです。「性奴隷」の始まりは「勘」なのです。

1996年、国連特別報告者のクマラスワミ氏が報告書を発表しました。この報告書が「性奴隷の証拠だ」という人もいます。たしかに、報告書では「日本軍慰安婦は軍の性奴隷制」と定義しています。この報告書に対して、当時の日本政府は反論書を作りました。その反論書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このような報告書は国連の人権委員会に提出するのは不適切である。」

「国連の人権委員会は、不十分な事実認識と誤った国際法の解釈に基づくこの報告書を否定すべきである。」

その理由は、

「日本政府に批判的な書籍からの記述を引用し、裏付け調査を行っていない。」

「直接聞いていない元慰安婦の話を「証言」にしている。」

「客観的な資料を無視し、十分な事実確認を行わず、極めて限定された資料に基づいている。」

「法的な主張は国際法に基づいておらず、誤っている。」

この反論書は素晴らしい内容なのですが、日本政府は一度配布したのに、批判を畏れて回収し、非公開にしてしまいました。何とも情けないことです。今からでもこの反論書を公開すべきです。

また、国連には人権条約に関する10の委員会があります。これらの委員会が日本政府に「慰安婦は性奴隷」、「救済措置をとれ」、「教科書で教えろ」と勧告しているから事実だ、という人もいます。確かに、自由権規約委員会、強制失踪委員会、人種差別撤廃委員会、女子差別撤廃委員会、社会権規約委員会、拷問禁止委員会の委員会で、慰安婦問題が取り上げられ、「総括所見」に日本政府に対しての勧告が書いてあります。

私はこれらの委員会に提出されたNGO意見書を調べました。委員会についても調べて、会議にも何度か参加して、現場を見てきました。それぞれの委員会には十数名の委員がいます。年に2~3回、一か月ほどの会期があります。その一か月の間に、条約を締結している約170か国のうちの10カ国ほどの国を審査します。一つの国について数十項目の人権問題が提起されています。従って、委員は日本という国の「慰安婦問題」だけについて詳しく調査、研究できないし、しません。そこで、NGOからの意見書を参考にします。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長年にわたり、沢山の左派NGOが意見書を送っていました。日本弁護士連合会、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日本女子差別撤廃条約NGOネットワーク、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新日本婦人の会、などです。韓国の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も、熱心に意見書を送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NGOの意見書を委員が参考にして日本政府への勧告と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日本政府にも問題があります。委員会から「慰安婦は性奴隷の被害者である」と勧告された当初、日本政府は何と回答していたか。

「慰安婦問題は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傷つけた問題だ」

「慰安婦の方々へ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てきた」

「アジア女性基金を設立し、元慰安婦に償い金を支給し、首相が公式なお詫びの手紙を送った」

こんな回答では、日本が悪かったと認め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日本政府は、慰安婦についての歴史的事実の説明もせず、委員会の理解が間違っている

ことの指摘もしませんでした。2014年になって、ようやく、日本政府は国連で初めて性奴隷を否定しました。今では外務省の公式サイトで「性奴隷、強制連行、20万人」を否定しています。しかし、一旦広まってしまった「性奴隷」の嘘は、なかなか覆せません。初期の日本政府の対応が大きな誤りでした。

2. ILO ~ 強制労働条約における慰安婦問題

次にILO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ILOでも慰安婦は強制労働条約違反だと認定されている」と主張するひとがいます。私は、ILOの年次報告を1994年版から2022年版まで調べました。分かったことは、ILOの委員会も国連の委員会も同じような仕組みだということです。

ILOには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という委員会があります。この委員会がILO年次報告を発表します。委員は毎年一回集まり、3週間ほどでILO加盟国187カ国が条約を守っているかを審査します。膨大な量です。

そこで、各国の労働組合からの意見を参考にします。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1996年に初めて、大阪の教員組合がILOの委員会に意見書を送っていました。「慰安婦は、戦時の性奴隷の被害者である」、「日本は強制労働条約に違反している」という意見書です。いったい誰が最初にILOに訴えようと思ったのでしょうか？それはあの「勘」で性奴隷と言った戸塚悦朗弁護士です。

1996年以降、多くの労働組合が慰安婦問題と戦時強制労働についてILOに意見書を送りました。実は、一番多く意見書を送っていたのは韓国の「韓国労働総連盟」と「韓国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です。

労働組合からの意見をうけて、ILOは年次報告書の中で、日本政府に「慰安婦に対する責任を受入れて、救済の措置を講じることを望む」という見解を出しました。日本政府は何と答えたか。

「韓国が受けた損害と苦しみを認め、遺憾と反省をくりかえしてきた」

これでは、まるで日本が悪かったと認めたかのようです。

2019年になって日本政府は初めて、ILO委員会に対して「慰安婦の強制連行」を否定しました。

否定するのが遅すぎです。慰安婦問題が取り上げられた時すぐに反論すべきだったのです。

3. ユネスコ ~ 「世界の記憶」における慰安婦問題

最後にユネスコ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ユネスコに「世界の記憶 Memory of the world」という事業があります。重要な記録物(文書や石碑・地図・製図・絵画・音楽・映画・テープ・写真など)を保存し、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目的の事業です。たとえば韓国の「朝鮮王朝の王室璽(おうしつじ)と冊封書(さくほうしょ)のコレクション」(2017年)、日本の「東寺百合文書(とうじ・ひゃくごう・もんじょ)」(2015年)が登録されています。

2016年に、この「世界の記憶」に「慰安婦の声」というタイトルの申請が提出されました。「慰安婦は性奴隷」と定義した申請で、9カ国の15団体が共同で申請したものです。9カ国とは、韓国、中国、台湾、日本、オランダ、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ティモールと英国で、中心となっているのは韓国と日本です。申請された記録物は、日本軍慰安婦制度に関する資料、慰安婦問題解決活動の資料など、2,744点もあります。自称元慰安婦たちの活動の記録もこの中に含まれています。

そこで、この申請の登録を阻止するために、私たちも対抗して申請をだしました。私たちの申請タイトルは「慰安婦と日本軍の規律」です。日本軍は規律を守って慰安婦に接していた、つまり、慰安婦は性奴隷ではない、という申請です。

「性奴隷」と「そうではない」という対立した二つの申請があるので、2017年にユネスコは「双方が話し合ってください」と勧告しました。これから、韓国を中心とする「慰安婦の声」申請グループと私たち「慰安婦と日本軍の規律」申請グループが慰安婦に関する申請をどうするか、話し合いをすることになってます。現在は話し合いの日程や条件を調整中です。

「慰安婦の声」は、韓国と日本が中心となって登録を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も韓日の専門家・研究者が協力して、このユネスコ「慰安婦 = 性奴隷」登録を必ず阻止したい

と考えています。

4. おわりに

慰安婦問題は、初めに日本人が火を着けました。火は国連から国際社会に広がり、韓国も一緒に火を煽りました。弱腰の日本政府は火を消そうとしませんでした。今でも、国連で火を煽り続けているのは日本人です。

慰安婦はいました。貧しい中でも、家族の為に、生きるために懸命に働きました。その慰安婦が政治利用され、国際機関を使って嘘が広まり、外交問題・安全保障問題にも影響が出ました。何よりも、教科書に嘘が記述され、韓国の子どもたちには日本に対する憎しみを植え付け、日本の子どもたちには自国に誇りを持たなくなる教育に使われています。天国にいる元慰安婦の方々は、こんなことは望んでいないはずです。

慰安婦問題は私たちの世代で終わらせなくてはなりません。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韓国と日本の良識ある人たちで力を合わせていきましょう。このシンポジウムが、未来ある韓日関係に繋が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有難うございました。

제2차 위안부문제 한일 합동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

제 2 부

(발표4) 조선인 위안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5) 위안부의 실태와 일본 학교 교과서의 문제점

마츠키 구니토시(국제역사논전연구소 수석연구원)

(발표6) 한국 초중고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실태와 대책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発表4) 朝鮮人慰安婦、どこからどうやって来たのか？

李宇衍(落星台經濟研究所研究委員)

(発表5) 慰安婦の実態と日本の学校教科書の問題点

松木國俊(国際歴史論戰研究所上席研究員)

(発表6) 韓国小中高教科書の慰安婦記述の実態と対策

金柄憲(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

《발표4》



李宇衍(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한국경제사 전공)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방문연구원, 규슈대학교 한국학 연구센터 교환교수를 지냈고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산림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2010년), 『반일 종족주의』(2019년, 공저), 옮긴 책으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2020년),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 性』(2022년)이 있다. 2019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며 정의연의 수요집회 반대시위를 벌여 이제 200를 앞두고 있다.

成均館大学校經濟学科で「朝鮮時代-植民地期山林所有制度と林相の変化に関する研究」で博士号(韓国經濟史専攻)を取得した。ハーバード大学經濟学科訪問研究員、九州大学韓国学研究中心交換教授を務め、現在落星垓經濟研究所の研究委員を務めている。著書で、『韓国の山林所有制度と政策の歴史1600~1987』(2010年)、「反日種族主義」(2019年、共著)、訳した本で『徴用工のない徴用工問題』(2020年)、『慰安婦と戦場の性』(2022年)等がある。2019年12月から毎週水曜日に日本大使館前で「慰安婦銅像撤去、水曜集会中断、正義連解体」を要求して正義連の水曜集会反対デモを展開して200回目を控えている。

조선인 위안부 -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

朝鮮人慰安婦 - どこからど
うやって来たのかのか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누가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のか:誰が

1. 매춘부

(1) 반도내

(2) 반도외

2. 일반인

1. 売春婦

半島内

半島外

2. 一般人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 | | |
|--|--|
| <p>1. 민간의 합법: 연계봉공계약 (Indetured Servitude Contract)=미우리(身賣り), 주의: "인신매매"라는 명칭</p> <p>2. 민간의 불법: 유괴와 인신매매의 결합</p> <p>(1) 유괴-인신매매</p> <p>(2) 약취-인신매매</p> <p>3. 관헌의 불법: 약취="강제연행"이라는 명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民間の合法:年季奉公契約 (Indetured Servitude Contract) =身売り、注意:「人身売買」という名称 2. 民間の不法:誘拐と人身売買の結合 (1) 誘拐-人身売買 (2) 略取-人身売買 3. 官憲の不法:略取="強制連行"という名称 |
|--|--|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 | | |
|--|--|
| <p>1. 민간의 합법: 연계봉공계약 (Indetured Servitude Contract)=미우리(身賣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1-2년) • 고액의 전차금(1천원 내외) • 수입의 분할(5:5, 6:4), 전차금 상환 •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도 전차금 상환으로 귀환 가능 | <p>1. 民間の合法:年季奉公契約 (Indetured Servitude Contract) =身売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契約期間(1-2年) - 高額の前借金 (1千ウォン 内外) - 収入の分割 (5:5、6:4)、前借金償還 - 契約期間満了以前にも転借金償還で帰還可能 |
|--|--|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1. 민간의 합법: 연계봉공계약(Indetured Servitude Contract)=미우리(身賣り).
 - 미우리라는 새로운 계약형태는 1900년경에 조선에 도입되었고, 식민지기를 통해 정착되었다. 가정에서 여성의 권리가 약하다는 점, 호주제가 가부장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공창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은 사회적·법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다.
1. 民間の合法:年季奉公契約 (Indetured Servitude Contract) =身売り。
 - 身売りという新しい契約形態は1900年頃に朝鮮に導入され、植民地期を通じて定着した。家庭で女性の権利が弱いという点、戸主制が家父長の権利を保障するという点、そして共創制が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点で、朝鮮と日本は社会的・法的に類似した背景を持っているためだ。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1. 민간의 합법: 연계봉공계약(Indetured Servitude Contract)=미우리(身賣り).
 - 흔히 "인신매매" 하고 했지만, "노비"나 "노예" 매매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미우리"에 상응하는 용어도 없었다. 그래서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1. 民間の合法:年季奉公契約 (Indetured Servitude Contract) =身売り。
 - よく「人身売買」と言ったが、「奴婢」や「奴隸」売買と違うという意味で、これは正確な表現ではない。「ミウリ」に相応する用語もなかった。それで「人身売買」という単語を使ったのだ。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2. 민간의 불법: 유괴와 인신매매의 결합

- (1) 유인-인신매매
- (2) 약취-인신매매

- 유괴: 유인과 약취의 총칭.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
(1) 그 방법이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2)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略取)라 함.
-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

2. 民間の不法: 誘拐と人身売買の結合

- (1) 誘引-人身売買
- (2) 略取-人身売買

- 誘拐: 誘引と略取の総称。人を従来 of 生活環境から離脱させ、自己又は第三者の实力的支配下に置いてその自由を侵害すること。
(1) その方法が欺瞞・誘惑を手段とする場合を誘引という。
(2) 暴行・脅迫を手段とする場合を略取という。
- 人身売買: 人を物のように売買することで他人に対して隷屬的な状態に置くこと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연계봉공계약=미우리身賣리와 인신매매의 차이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年季奉公契約=身売りと人身売買の違い

- 인간에 대한 거래와 관련하여, 미우리를 노예나 조선의 노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다.
- 노예나 노비의 거래 계약은 주인이 임의로 사역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면적, 종신(終身)토록 사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적, 그 자녀까지 신분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세습적인 성격을 갖는다.
- 미우리는 도쿠가와 시대부터 존재하여 제2차 대전 종전까지 존속한 일본 특유의 거래 관행이었다. 조선에는 그러한 거래관행이 발견되지 않는다. 부모가 딸을, 남편이 부인을 파는 자매노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 人間に対する取引と関連して、身売りを奴隷や朝鮮の奴婢取引と同一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 奴隷や奴婢の取引契約は主人が任意に使役できるという意味で全面的、終身として使役できるという点で永久的、その子供まで身分を受け継ぐという意味で世襲的な性格を持つ。
- 身売りは徳川時代から存在し、第二次大戦終戦まで存続した日本特有の取引慣行だった。朝鮮にはそのような取引慣行が発見されない。親が娘を、夫が妻を売る自賣
- 奴婢の取引でも同じだ。

누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誰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どのように

3. 관헌의 불법: 관헌의 약취="강제연행"
: "관헌"이 "총칼"을 앞세워 "노예사냥",

3. 官憲の不法:官憲の略取="強制連行"
: 「官憲」が「銃刀」を前面に出して「奴隷狩り」、

위안부의 공급구조: "누가"와 "어떻게"의 조합 慰安婦の供給構造: 「誰が」と「どのように」の組み合わせ

* 누가

1. 반도내 매춘부
2. 반도외 매춘부
3. 일반인

* 誰が

1. 半島内売春婦
2. 半島外売春婦
3. 一般人

* 어떻게

1. 미우리=연계봉공
2. 유인-인신매매
3. 약취-인신매매
4. 관헌의 강제연행

* どうに

1. 身売り=年季奉公
2. 誘引-人身売買
3. 略取-人身売買
4. 官憲の強制連行

일반인*관헌의 강제연행 一般人*官憲の強制連行

"강제연행설"의 근거는 전 위안부들의 "증언"뿐: 근거 검토

-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은 그 모두가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1983), "일본군 관여 문서"(1992), 고노 담화(1993), 한국, 북한, 중국에 있는 극히 일부 위안부들의 증언(1993년 이후)에 근거하고 있다.
- 고노 담화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이미 나와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본군의 문서가 발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에 떠밀려 일본 정부가 작성하게 된 것이다.
- 요시미 요시아키가 "발견"한 "일본군 관여 문서"는 "강제연행"과 무관한 것이었고, 기타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은 "창작"임이 드러났고, 일본에서 이를 집중 보도한 아사히(朝日)신문은 그와 관련된 14개의 기사를 취소해야 했다.
- 강제연행론자들의 믿음대로, 얼핏 보아 증거가 산처럼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모두가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지금까지 실제로 남은 것은 일부 위안부들의 "증언", "옛날이야기" 뿐이다.

「強制連行説」の根拠は元慰安婦の 「証言」のみ:根拠検討

- 国際機関の報告書は、いずれも吉田清治の「告白」(1983年)、「日本軍関与文書」(1992年)、「河野談話」(1993年)、韓国、北朝鮮、中国にいらっしゃるごく一部の慰安婦たちの証言(1993年以降)に基づいている。
- 河野談話は韓国と日本国民が「被害者と加害者の証言がすでに出ており、これを客観的に立証する日本軍の文書が発見されている」と確信している状況に押されて日本政府が作成することになったものだ。
- 吉見義明が「発見」した「日本軍関与文書」は「強制連行」と無関係なものであり、追加的文書は見つからなかった。
- 吉田清治の「告白」は「創作」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日本でこれを集中的に報道した朝日新聞は、それに関連する14の記事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 強制連行論者たちの信頼どおり、一見証拠が山のように積もったように見えるが、他の皆が強制連行の証拠にはならないという事実が立証され、これまで実際に残ったのは一部慰安婦たちの「証言」「昔話」だけだ

"강제연행설"의 근거는 전 위안부들의 "증언"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경우

- "유엔도 강제연행을 인정했다"
- "강제연행설"이 세계적으로 지지되고, 국내에서 더욱 큰 신뢰를 얻게된 계기는 1996년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인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위안부 "강제연행"의 근거를 11개의 각주로 제시. 그 중에서 1개는 요시다 세이지의 {나의 전쟁범죄}, 10개는 J. Hicks(1995), *The Comfort Women*. Hicks는 요시다 세이지(1983)의 {나의 전쟁범죄}를 근거로 한다.
- 1990년대 중반, {나의 전쟁범죄}가 날조로 밝혀짐.
- {쿠마라스와미보고서}의 "강제연행"의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強制連行説」の根拠は元慰安婦の「証言」のみ:{クマラスワミ報告書}の場合

- 「国連も強制連行を認めた」
- 「強制連行説」が世界的に支持され、国内でさらに大きな信頼を得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1996年の国連人権委員会特別報告者クマラスワミの報告書。{クマラスワミ報告書}。
- 慰安婦 "強制連行"の根拠を11の脚注で提示。その中で1つは吉田清治の{私の戦争犯罪}、10つはJ.Hicks(1995)、*The Comfort Women*。Hicksは吉田清治(1983)の{私の戦争犯罪}を根拠とする。
- 1990年代半ば、{私の戦争犯罪}が捏造であることが判明。{クマラスワミ報告書}の「強制連行」の証拠はすべて消えた。

"강제연행설"의 근거는 전 위안부들의 "증언"뿐: 일관성이 없다

- 현재 한국에서 국가원로 대우를 받고 자신을 독립운동가로 여기는 듯 한 옛 위안부 이용수는 1992년 8월 15일, KBS TV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는지를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니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업자가 벌인 전형적인 유괴사건)
- 이용수 씨는 2007년 2월 16일에 미국 하원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후 캐나다, 유럽의회, 유럽 각국 의회가 결의문 채택.
"군인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들어와서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군인은 뒤에 서 등에 뭔가를 콧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밤에. (나는)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 1991년에 최초 커밍아웃한 김학순도 마찬가지다. 그 외 김순옥, 김군자 등

「強制連行説」の根拠は元慰安婦の「証言」だけ:一貫性がない

- 現在、韓国で国家元老待遇を受け、自分を独立運動家と思っているような元慰安婦イヨンスは1992年8月15日、KBSテレビに出演した。司会者がどのように慰安婦になったかを尋ねると、彼女は次のように答えた。
「私はその時16歳でしたが、着ることもできず、食べることもできずにいましたが、どんな人かワンピース着と靴一足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それを渡しながら行こうと言われて、それをもらって、その時はそういうことも知らずに好きだについて行きました」(業者が起こした典型的な誘拐事件)
- 李ヨンスは2007年2月16日、米下院慰安婦被害者聴聞会に証人として出席した。彼女は次のように「証言」した。その後カナダ、欧州議会、欧州各国議会が決議文を採択。
「軍人とその女の子が入ってきて、肩をこう囲んで片手で口をふさぎ、軍人は後ろから背中に何かを突き刺しながらそのまま連れて行かれました。夜に。(私は)歴史の生き証人です」
- 1991年に初めてカミングアウトしたキム・ハクスンも同じだ。その他、キム・スンオク、キム・グンジャなど

“強制連行説”の根拠は 元 慰安婦たちの “証言” だけ: 客観的 証拠が ない

-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녀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 일본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공적(公的)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민간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족, 친지, 이웃 등)가 남긴 기록도 없고, 그러한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 강제연행론자들은 위안부들이 무려 “20만 명”이 그렇게 끌려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0년간 그를 입증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 강제연행된 여인의 5명의 가족 * 20만 + 여인의 친척 50명 * 20만 + 마을사람 50명 * 20만 = 2,100만 명이 “강제연행” 이나 친지가 “실종”된 기억을 갖게 될 것. 그러나 1951-1965, 한일회담 (준비)과정이나 그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단 한번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 2016년에 정의연에 편입된 후 해소되는 절차를 거친 정대협은 그 막강한 규모와 넉넉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 위안부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다. 조사를 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強制連行説」の根拠は元慰安婦の「証言」だけ:客観的証拠がない

- さらに重要な問題は、彼女たちの証言を裏付ける客観的な証拠がないという事実だ。日本の官憲による「強制連行」を示す公的文書は見つかっておらず、民間人を含めてそのような事件を目撃した第三者（家族、親戚、隣人など）が残した記録もなく、そのような証言も出ていない。強制連行論者たちは慰安婦たちがなんと「20万人」がそのように連行かれたと主張し、この30年間彼を立証する証拠をただ一つも提示できなかった。
- 強制連行された女性の5人の家族*20万+女性の親戚50人*20万+村人50人*20万=2100万人が「強制連行」や知人が「失踪」した記憶を持つこと。しかし1951-1965、韓日会談（準備）の過程やそれに対する反対運動で一度もこのような問題が提起されたことがない。
- 挺対協は、その強大な団体規模と豊かな財政にもかかわらず、全慰安婦の家族や知人に対する調査を実施した記録がない。調べたが結果を公開しないのだろうか?とうてい理解できない。

매춘부, 위안부, 그리고 미우리=연계봉공계약
 売春婦、慰安婦、そして身売り=年季奉公契約

- 한국정신대연구소(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의 현병숙, 음식점에서 2년 500엔에 매춘부로 일하고, 귀국 후 모집업자를 찾아가 3년 3천엔에 중국 모처, 다시 봉천, 다시 일본군 위안소를 찾아가 취업. 다음은 중국으로 갈 때 모집업자와 계약 과정에 대한 그녀의 증언.
- 韓国挺身隊研究所 (2003)、{中国に連れて行か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2}の玄炳淑 (ヒョン・ビョンスク)、飲食店で2年500円で売春婦として働き、帰ってきた後募集業者を訪ね3年3千円で中国某所、再び奉天、再び日本軍慰安所を訪ねて就職。以下は、中国に行く際の募集業者との契約プロセスに関する彼女の証言。

- 배준철(질문자):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 중국에 가면 뭐 하는 건지 아셨어요?”
- 현병숙: “알았어요. 알구 갔지요”
- 배준철: “일본 군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구요?”
- 현병숙: “알구요”
- 현병숙: “그래 사 가갔는가 하니까 사겠다구. 그래 얼마 받겠냐고 물습디다.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곤란하니까, 3년 기한을 두고 얼마 주겠소?” 하니 “2,000원을 주겠다” 그런단 말야. 그래서 “2,000원을 주면 1년에 1,000원도 못 돼요. 1,000원씩만 주슈.” (그 사람이: 이우연) “아 그래라. 3천원을 받아 가지구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동의받아 가지구 오라.”
- “배준철: “아, 도장을 받아가셨어요?”

페·جون치올 (質問者) : ところで、おばあさんがその時中国に行ったら何を
するのか分かりましたか?

ヒョン·ビョンスク: 分かりました。知って行きました。

페·جون치올: 日本の軍人をたくさん相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も
知っていますか?

ヒョン·ビョンスク: 知っています……

ヒョン·ビョンスク: それで買って行くのかと聞いたら買うと言った。彼はいくら
もらえるのかと尋ねた。それで「私の母と父が困るから、3年期限でいくらくれ
ますか?」と私が尋ねた。彼は「2,000ウォンを与える」と答えた。それで「2,0
00ウォンをあげたら1年に1,000ウォンにもなりません。1,000ウォンずつくだ
さい」と話した。するとその人が「そうしよう。3千ウォンをもらって家に
帰って、お母さんとお父さんの同意を得てきなさい」と話した。

페·جون치올: あ、はんこをもらったんですか?

- 현병숙: “예. 그럼. “어마니든지 아버지든지 한 분을 데리고 오면 돈을 주
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장을 받아라.” 그때는 심했어요.” ……
- 현병숙: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근데 할머니 할
아버지 도장 다 찍으랍니다. 어카갔나? ... 아버지가 써가지구 할머니 도
장 할아버지 도장 찍어서 그 다음에 다 동의를 받았수다..
- 배준철: “아, 도장을 받아가셨어요?”
- 현병숙: “예. 그럼. ……
- 현명숙: “(중국 모처: 이우연) 한 20~30명 돼요. 다 조선여자들이예요. 나
사온 주인 아들보구 “난 요기 있다간 빛 못 다 갚겠소. 다른 데로 넘겨주
우.” “아버지가 말하기를 못넘기기루 계약을 썼는데.” “내가 본인이 승낙
을 했는데, 일 있습니까?”

ヒョン・ビョンスク: はい。もちろんです。"お母さんでもお父さんでも一人連れてきたらお金を払って、おばあちゃん、おじいちゃんにもハンコをもらいなさい"と書いていました。その時はひどかったです」.....

ヒョン・ビョンスク: それでお母さんとお父さんの名前を全部書いてハンコを押して、でもおばあさんとおじいさんのハンコを全部押してほしいと言います。どうしますか? ... 父が書いておばあさんのはんこ、おじいさんのはんこを押してみんな同意をもらいました..

ペ・ジュンチョル: あ、はんこをもらったんですか?

ヒョン・ビョンスク: はい。そうですね。.....

ヒョン・ミョンスク: (中国某所:イ・ウヨン)20~30人になります。みんな朝鮮の女性たちです。私を買ってきた主人の息子に「私はここにいると借金を全部返せない。別のところに渡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お父さんが渡さない契約をしたんですが」「私は本人が承諾したのですが、問題はあります.」

- 배준철: "할머니, 그런데 그 집에는 주로 어떤 손님이 와요?"
- 현병숙: "군대도 오구, 개인도 오구, 여러 사람이 다 오지요."
- 현병숙: "(봉천에서도 생김새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자: 이우연) 그래서 난 여기 못있겠다구 그랬지. 군대들 가는 데 따라가서 촌에 가서 돈 벌어야지 안되겠다고. 그래서 봉천에서 또 뽑혀서 뽀뽀(蚌埠)로 왔지요."
- 배준철: "그럴 때 할머니한테 지워진 빚 3,000원이 뽀뽀 그쪽 주인한테 그대로 넘어간 거군요?"
- 현병숙: "예"
- 배준철: "뽀뽀 주인도 조선 사람이구요?"
- 현병숙: "예. 다 조선사람이에요"

페·جون치올: ばあちゃん、ところでその家には主にどんなお客さんが来ますか？

ヒョン·ビョンスク: 軍隊も来るし、個人も来るし、多くの人 comes ね。……

ヒョン·ビョンスク: (奉天でも外見のせいでお金を稼げないと:李ウヨン) それで私はここにいられないと言った。 軍隊が行くところについて行って 村に行ってお金を稼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れで奉天からまた選ばれてパンプ(蚌埠)に来ました

ペ·جون치올: そういう時、おばあさんの借金3,000ウォンがパンプそちらの主人にそのまま渡されたんですね？

ヒョン·ビョンスク: はい

ペ·جون치올: パンプの主人も朝鮮人ですか？

ヒョン·ビョンスク: はい。みんな朝鮮人です

- “증언”이나 “고백”이 없는 것이 특징
- 위안부가 되기 전에 매춘부였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폭로해야 하므로 정부나 정대협에 신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 신고한 자들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한다. 명예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라는 “명예”를 포기해야 한다.
- 「証言」や「告白」がないのが特徴
- 慰安婦になる前に売春婦だった人々は恥ずかしい過去を自ら暴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政府や政対協への申告をあきらめた可能性が高い。
- 申告した者たちにも真実を語らない誘引が存在する。名誉が墜落するだけでなく、「被害者」という「名誉」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반도내 매춘부*미우리(연계봉공계약)
半島内売春婦*身売り(年季奉公契約)

반도내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内売春婦から慰安婦へ

- 한겨레신문의 사장을 역임한 송건호(宋建鎬)는 위안부 문제가 정치·외교적 빅이슈로 부상하기 전 1984년에 그가 낸 책, {일제지배하의 한국현대사(日帝支配下の韓國現代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1927년생으로서 식민지기를 경험한 사람이다.
- ハンギョレ新聞の社長を歴任したソン・ゴン호は慰安婦問題が政治外交的ビッグイシューに浮上する前、1984年に彼が出した本、{日本統治下の韓国現代史}で次のように述べた。彼は1927年生まれで植民地時代を経験した人だ。

반도내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内売春婦から慰安婦へ

- “일본 당국은 1937년말의 남경(南京) 공략 후, 서주(徐州)작전이 개시될 무렵, 조선 내의 어용 알선업자들에게 지시하여 빈핍(貧乏)으로 매춘생활을 하고 있던 조선 여성을 다수 중국대륙으로 데리고 가서 ‘위안소’, ‘간이 위안소’, ‘육군오락소’ 등의 명칭을 가진 일본군 시설에 배치하고, 일본군 병사의 노리갯감으로 삼았다.”
- 日本当局は1937年末の南京攻略後、徐州作戦が開始される頃、朝鮮内の御用斡旋業者に指示し、貧窮で売春生活を送っていた朝鮮女性を多数中国大陸に連れて行き「慰安所」「簡易慰安所」「陸軍娯楽所」などの名称を持つ日本軍施設に配置し、日本軍兵士の狙い撃ちとした

반도내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内売春婦から慰安婦へ

- 일본이 중국동부 지난(濟南) 점령 다음해인 1938, 조선에서 정식 도항허가를 받고 지난으로 온 일본인은 173명, 조선인은 115명이었고, 그중에서 조선 성매매산업에서 온 여자는 일본인 76명, 조선인 101명(노마(2016)).
- 日本が中国東部済南占領翌年の1938年、朝鮮から正式渡航許可を受けて済南に来た日本人は173人、朝鮮人は115人で、その中で朝鮮売春産業から来た女性は日本人76人、朝鮮人101人(ノーマ(2016))。

반도내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内売春婦から慰安婦へ

- 버마 랑군에 소재하는 둘째 부인의 남동생(처남)이 소유한 위안소에서 손님 안내와 회계 등을 담당하는 초우바(帳長)로 일하고 그 생활을 일기로 남긴({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박 씨의 부인은 대구에서 여관을 운영하였다. 박 씨와 그의 처남이 군위정 위안부를 모집할 때, 그들은 농촌에 가서 여성을 유인하거나 비정한 부모를 찾아가기 보다는 이미 부인과 관계가 있는 매춘부와 먼저 교섭하지 않았을까?
- ビルマ・ラングーンに所在する次女の弟(義弟)が所有する慰安所で客引きや会計などを担当する長場として働き、その生活を日記に残した({日本軍慰安所管理人の日記})朴氏の妻は大邱で旅館を経営した。朴氏と義弟が軍慰安婦を募集する際、彼らは農村に行つて女性を誘引したり非情な両親を訪ねるよりは、すでに妻と関係のある売春婦と先に交渉したのではないか?

반도내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内売春婦から慰安婦へ

- 서울 와룡동, 돈의동 등 밀매음 집창촌 사창, 기타 매춘부(예기 작부, 가페여급) 존재. 공창 수와 비슷. 반도내에서 공창이 되지 못한 이들 매춘부도 위안소의 공창=위안부의 공급원.
- 일본에서 위안부는 대부분 매춘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기존 성노동자가 우선 군위안부 수요를 충족하였다고 보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
- ソウル臥龍洞(ワリョンドン)、敦義洞(トンウィドン)など密売淫集娼村の私娼、その他売春婦(芸妓、作付、カフェ女給)存在。半島内で公娼になれなかった売春婦も慰安所の公娼=慰安婦の供給源。
日本で慰安婦は大半が売春婦出身とされている。韓国でも既存の性労働者がまず軍慰安婦需要を充足したと見られない他の理由があるだろうか?

반도 외 매춘부*미우리(연계봉공) 半島外売春婦*身売り(年季奉公契約)

반도 외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外売春婦から慰安婦へ

- 성매매산업 종사자(각종 매춘업소 업주와 예기, 창기, 작부, 카페여급 등)가 1920년대 이후로 중국, 만주, 일본, 대만 등지로 진출하여 그 수가 급속히 증가
- 売春産業従事者（各種売春業者の事業主や芸妓、娼妓、酌婦、カフェの女給など）が1920年代以降に中国、満州、日本、台湾などに進出し、その数が急速に増加

반도 외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外売春婦から慰安婦へ

- 1940년 경, 중국과 만주에 진출한 창기, 예기, 작부, 카페여급 등성병 검사 대상은 조선 내와 비슷한 수준(야마시타 영애(2008), 이영훈(2019)).
- 20년대 초반부터 조선인 창기 증가 시작, 30년 타이완인 수를 능가, 1940년 전후 타이완 창기의 ¼(송연옥(2020)).
- 1940年頃、中国と満州に進出した娼妓、芸妓、酌婦、カフェ女給など性病検査対象は朝鮮内とほぼ同じ水準（山下英愛（08）、李ヨンフン（2019））。
- 20年代初めから台湾の朝鮮人娼妓増加開始、30年台湾人数を上回り、1940年前後台湾創期の(ソン·ヨン옥(2020))。

반도 외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外売春婦から慰安婦へ

- 박정애(20), 1944년 중국 진화 란지시에서 일한 위안소 업주, 관리인 또는 점원
금산동준(金山東俊), 1941년 {재지반도인명록}에는 안후이성 우후현 스마터우 제 43호 16명 가량의 조선인 여자가 있는 제2복명루(주인은 홍국철=삼정국철)에서 거주, 근무
- 후지나가(2001), 1938.11-1940.1, 대만 성매매산업에서 중국 남부 일본군위안소로 전매된 여성, 일본이 828명, 조선이 528명, 대만이 266명.
- 파크·죤에(20)、1944年中国鎮和蘭芝市で働いた慰安所事業主、管理人または店員金山東俊(クムサン・ドンジュン)、1941年{在支半島人名録}には安徽省武府県須磨頭第43号16人ほどの朝鮮人女性がいる第2福明楼(主人は洪国哲=三井国哲)に居住、勤務
- 藤永（2001）、1938.11-1940.1、台湾売春産業で中国南部の日本軍慰安所として転売された女性、日本が828人、朝鮮が528人、台湾が266人。

반도 외 매춘부에서 위안부로 半島外売春婦から慰安婦へ

- 일본에서 메이지초기부터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한 "가라유키상"이 있었고, 이것이 일본인 위안부의 선구였듯이, "조선인 가라유키상"(야마시타 영애(2008)이 존재.
- 日本で明治初期から中国、東南アジアなどに進出した「唐行さん」があり、これが日本人慰安婦の先駆だったように、「朝鮮人唐唐行さん」(山下英愛(2008)が存在。

일반여성*미우리(연계봉공)
일반여성*身売り(年季奉公契約)

일반여성이 위안부로 一般女性が慰安婦に

- 심문 문항, “일본군을 위해 매춘부로 일할 조선 여성을 모집하는 일에 대해 조선인들은 보통 알고 있는가? 이러한 일에 대한 평범한 조선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당신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발생한 소란이나 마찰에 대해 알고 있는가?”(자료는 1944년, 미군 포로가 된 3명의 조선인 일본해군 군속에 대한 심문기록. [3명의 조선인 ‘일본 제국 해군’ 군속에 대한 합동 보고서 목록 제78호(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Imperial Japanese Navy’ Civilians List No. 78), 1945년 3월 25일, 조선인들에 대한 특별 질문에 대한 답변(Response on Special Questions on Koreans)]
- 尋問質問項目、「日本軍のために売春婦として働く朝鮮女性を募集することについて、朝鮮人は普通知っているのか? このようなことに対する平凡な朝鮮人の態度はどうか? あなたたちはこのようなことによって発生した騒ぎや摩擦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資料は1944年、米軍捕虜となった3人の朝鮮人日本海軍軍属に対する尋問記録。[「3人の朝鮮人『大日本帝国海軍』軍属に対する合同報告書目録第78号(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Imperial Japanese Navy' Civilians List No.78)」、昭和20年3月25日]

일반여성이 위안부로 一般女性が慰安婦に

- 답: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자원자(volunteers)이거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매춘부로 팔린 사람들이다. 이것은 조선적 사고방식이지만, 일본인이 만약 여성을 직접적으로 징발(direct conscription)했다면, 조선의 늙은이나 젊은이는 격분하여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남성들은 분노하여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일본인을 살해하고 나섰을 것이다.”
- 答:「私たちが太平洋で見た全ての売春婦は志願者 (volunteers) か、彼らの両親によって売春婦として売られた人々だ。これは朝鮮的な考え方だが、日本人がもし女性を直接的に徴発(direct conscription)していたら、朝鮮の年寄りや若者は激怒して蜂起したであろう。男性たちは怒り、何にあっても日本人を殺害したのだろう」

일반여성이 위안부로 一般女性が慰安婦に

- 다수의 전 위안부가 부모가 자신을 “팔았다”고 말했다. “미우리”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없었기 때문이고, 부모는 고액의 전차금을 받게되므로 미우리 계약을 맺는 것을 “팔았다”, “사다”고 표현한 것이다.
 - 문옥주 등 한국의 전 위안부 중 위안소 주인보다 자신을 팔아 넘긴 아버지가 더 많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
- 多くの元慰安婦が両親が自分を「売った」と言った。「身売り」に該当する韓国語がなかったためであり、両親は高額の前借金を受け取ることになるので、ミウリ契約を結ぶことを「売った」「買う」と表現したのだ。
 - ムン・옥주など韓国の元慰安婦のうち、慰安所の主人より自分を売った父親がもっと憎いと言った人がいる。

일반여성이 매춘부로 一般女性が慰安婦に

- 미우리 거래는 매우 빈번해서 그에 관련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도 빈번했다. 그러나 경찰이 입건한 대부분의 용의자는 결국 무죄가 되었다. 대부분의 거래가 미우리라는 계약구조와 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身売り取引は非常に頻繁で、それに関連する警察と検察の捜査と裁判所の裁判も頻繁だった。しかし、警察が立件したほとんどの容疑者は最終的に無罪となった。大半の取引が「身売り」という契約構造と契約内容から外れていないためだ。

일반여성이 매춘부로

- 이영훈(2020)에 따르면, "유괴"나 "약취"로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의 약 90%가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소수만 검찰에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다. 1924-41년간, 두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용의자가 무려 40,553명이었다. 그만큼 "미우리"가 빈번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들에서 기소된 것은 2,506명에 불과했다. 1924-43년간, 경찰에 검거된 자 중 87.5%가 기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유곽, 매춘숙, 위안소 등 매춘산업에 종사했던 알선업자나 업주들이 불법적 유괴와 인신매매보다는(비록 그러한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우세하게 합법적인 미우리를 선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一般女性が慰安婦に

- 이·ヨン퐁(2020)によると、「誘拐」や「略取」で警察に検挙された容疑者の約90%が検察に送致された。しかし、その中で少数だけが検察に起訴されたり裁判にかけられた。1924-41年間、二つの犯罪で検察に送致された容疑者が何と40,553人だった。それだけ「身売り」が頻繁だったのだ。しかし、それらの事件で起訴されたのはわずか2506人だった。1924-43年間、警察に検挙された者のうち87.5%が起訴されなかったのだ。これは遊郭、売春宿、慰安所など売春産業に従事した斡旋業者や事業主が不法誘拐と人身売買よりは(たとえそのような事件も多くあったが)それよりは優勢に合法的な身売りを選択し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

일반인*유괴-인신매매 一般人*誘拐-人身売買

일반인이 위안부로: 유인-인신매매 一般人が慰安婦へ:誘引-人身売買

- 감언이설로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 위안부로: 전 위안부 증언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일본군의 위안부와 업자에 대한 감시체계에 비추어 얼마나 광범했는지 불명.
- 매춘부로: 1939년, 하윤명 부부, 150여 명의 소녀를 취업 등을 미끼로 꾀어 만주와 중국 등지의 매춘업소나 기타接客업소에 팔아 넘김
- 口車で就職詐欺と人身売買。
- 慰安婦として:前慰安婦証言で頻繁に現れる。日本軍の慰安婦と業者に対する監視体系に照らしてどれほど広範囲だったかは不明。
- 売春婦として:1939年、ハ・ユンミョン夫妻、150人余りの少女を就職などをエサに誘い満州や中国などの売春業者やその他の接客業者に売り渡す

【발표5】



마츠키 쿠니토시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상석연구원)
 1954년 구마모토현 출생. 1954년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같은 해 도요타통상 주식회사 입사. 1955년부터 59년까지 도요타통상 서울사무소 근무. 2000년 동사를 조기 퇴사. 2004년 마츠키상사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취임. 현재 조선근현대사연구소 소장, 위안부의 진실국민운동 상임간사(초대 간사장),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산타마(三多摩) 부지부장,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상석연구원. 저서로 「사실은 '일한병합'이 한국을 구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한국」(WAC 출판), 「사실은 훌륭했다 한국의 역사」, 「군함도·한국에게 훼손된 세계유산」(하트 출판) 외. 감수에 야쿠타 나오키 저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과하자」(일본어판 및 한국어판) 등.

위안부의 실태와 일본 학교교과서의 문제점

소개받은 마츠키입니다. 저는 무역상사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담당해 왔습니다. 주재원으로써 서울에 4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일본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본과 한국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요시다세이지라는 사기꾼의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어 일본 좌익

세력과 한국내의 친북반일시민단체가 만들어낸 장대한 픽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교과서에도 ‘일본은 점령지나 식민지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로 전쟁터로 보냈다’ 라는 거짓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본 교과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회사가 제작하여 이것을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이 검정합니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중 어느 교과서를 채택할 지는 대부분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의견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본 학교의 교육현장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라는 친북 친중국 사상을 가진 좌익 단체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회사가 자사 교과서를 팔기 위해서는 일교조 교사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 회사는 친북, 친중국 좌익 학자들에게 교과서 집필을 의뢰합니다.

이런 좌익 학자들은 일본을 폄하하고 아이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자부심)를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두 나라, 즉 일본 과 한국 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을 교과서에 씁니다. 이렇게 완성된 교과서를 문부과학성이 검정하는데, 문부과학성에도 상충부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친북, 친중국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팀의 주임을 3년 전까지 근무하고 있던 나카마에 고로라는 인물은 마오쩌둥 연구의 일인자이며, 마오쩌둥을 예찬하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 주간지는 나카마에 고로(中前吾郎)에게는 북한 공작원의 혐의가 있다고 폭로했지만, 그는 지금도 교과서 검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나카마에 고로와 같은 북한이나 중국을 신봉하는 좌익 인사들을 교과서 검정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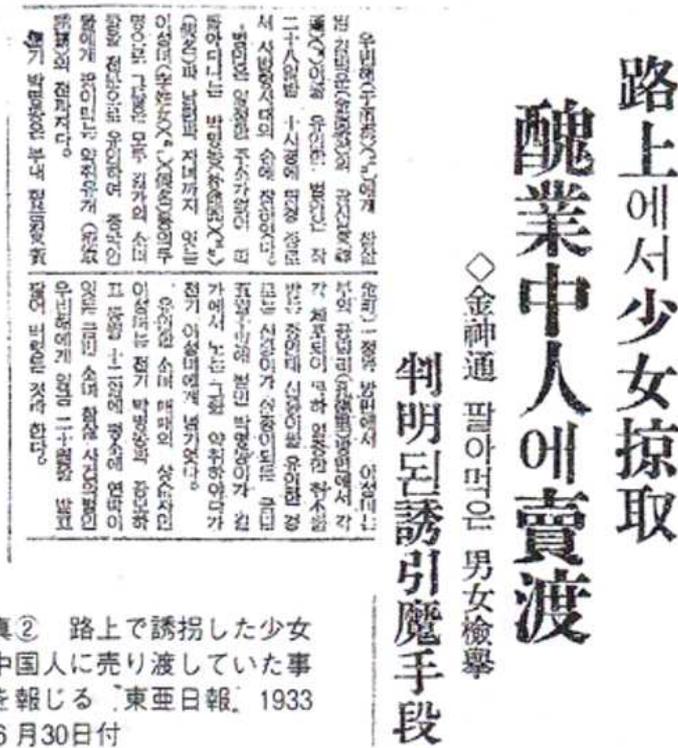
그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자부심)를 갖게 하는 교과서는 불합격시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의 많은 여성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식의 거짓말이 교과서에 쓰여 있으면 이것으로 일본을 폄하할 수 있고,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대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합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교조 교사들이 그런 거짓말로 채워진 교과서를 골라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는 일본인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여러분들의 민족 자긍심도 크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만약 많은 조선 여성들이 일본 관헌에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세 한반도 전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남자들은 자신들의 딸이, 여동생이, 애인이, 눈앞에서 강제 연행되어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배웅하고 있었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위안부강제연행이 사실이라고 쓰고 있는 일본 교과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그런 '겁쟁이'이었다고 깎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터무니 없는 일이죠?

그러면 실체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1938년 한국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資料1 우선 이것을 보십시오. 1933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길거리에서 소녀 약탈, 추업 중인에게 팔아 넘긴 남녀 검거
판명된 유인마 수단



資料2 다음은 이것입니다. 1938년 12월 4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양가 처녀를 유인해 만주에 매각 편재 부산서 범인 체포’, 만주는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입니다.

資料4 다음은 이 기사입니다. 이것은 1939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연명 유괴사건 파문 확대. 악랄한 유곽업자. 경찰의 구출을 염려. 속속 외국으로 전매함. 인사소개소에 검찰의 메스. 특별조사대 편성 내담.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악랄한 유곽업자들, 혹은 유괴마들이 많은 양가의 자녀와 농촌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중국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그리고 그것을 구출한 사람이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그 실태를 이 기사 속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資料5 이것은 1938년 3월 28일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에 50여 처녀를 유인. 복지, 만주 대부대에 매각. 양녀로 삼겠다고 백지위임장을 들고 범죄 감행.' 제2의 하연명 사건 확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五十餘處女를誘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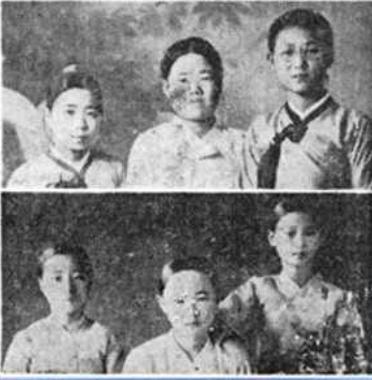
北支、滿洲에大部隊를賣喫

收養女를한다고 白紙委任狀을 받아서 犯罪敢行

第二河允明事件擴大

團長은子家兄弟

西粟에서 殘黨捕獲



自作農이 純小作

寸

北支、滿洲에大部隊를賣喫... 收養女를한다고 白紙委任狀을 받아서 犯罪敢行... 第二河允明事件擴大... 團長은子家兄弟... 西粟에서 殘黨捕獲... 自作農이 純小作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을 읽어봅시다.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냈으니 그 부분만 여기서는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26일 같은 경찰서 김, 민, 이시베 형사 등이 천가 형제가 탈출해 잠복하고 있다는 인천의 모 여관을 습격해 무사히 체포하여 엄중히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죄상이 속속 밝혀져 조사 경관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천순동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의 사촌동생인 천억만 외에 먼 친척 형제들을 경향 각지로 보내 가난에 울거나 허영을 동경하는 시골 젊은 여성의 부형을 찾아갔습니다. 호의호식 생활로 공부까지 시키고, 훗날 적령기에 이르면 서울근처로 시집을 보내준 다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시킨다는 등 지 감언으로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동시에 양녀로 삼겠다는 백지 위임장과 호적초본, 인감증명 등을 가지고 찾아와 여급 또는

작부 등으로 팔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녀는 하녀로 삼아 학대하고 크면 매춘부로 인육 시장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는 형제의 독수(毒手)의 희생양이 된 소녀 또는 유부녀는 현재 동 경찰서에 구출되었다는 배금순(19) 이옥희(16) 등 15명의 처녀 이외에, 이미 북지나 만주 혹은 경성 시내에 매춘부로 팔린 부녀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5명으로 앞으로 얼마나 판명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아래 '형사대는 천순동의 자백을 받아 경향 각지에 흩어진 유괴 편의대의 대대적 소탕전을 벌여 붙잡는다고 한다' 고 하고 구출된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매춘부로 만들기 위해 소녀가 '강제연행'된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자는 악덕 유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녀와 그 부모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데리고 나와 학대하고 매춘부로 인육시장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린 소녀를 일본인 경찰관이 한국인 경찰관과 힘을 합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의 실태였습니다. 당시도 지금과 같은 근대적 법치국가였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위안부 강제연행은 북한과 남한의 반일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좌익이 한일을 이간질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에 속아 한일이 이반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안보면에서도 경제면에서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일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거짓말을 없애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민족 자긍심을 되찾읍시다. 그리고 한일이 손을 꼭 잡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아시아의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앞으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発表3】

松木國俊(国際歴史論戦研究所 上席研究員)

昭和25年熊本県生まれ。昭和48年慶応義塾大学法学部政治学科卒業。同年豊田通商株式会社入社。昭和55年より59年まで豊田通商ソウル事務所勤務。平成12年同社早期退社。平成16年松木商事株式会社設立、代表取締役就任。現在、朝鮮近現代史研究所所長。「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初代幹事長（現常任幹事）。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三多摩副支部長、国際歴史論戦研究所上席研究員。著書に『ほんとうは「日韓併合」が韓国を救った！』『恩を仇で返す国・韓国』（いずれもワック）『本当は素晴らしかった韓国の歴史』『軍艦島・韓国に傷つけられた世界遺産』（いずれもハート出版）他。監修に百田尚樹著『今こそ韓国に謝ろう』（日本語版及び韓国語版）など。

慰安婦の実態と日本の学校教科書の問題点

ご紹介頂きました松木です。私は貿易商社で長年韓国の担当をやっていました。駐在員として若い頃にソウルに4年ほど住んだこともあります。韓国が大好きな日本人の一人です。しかし残念ながら日本と韓国の関係は慰安婦問題を巡って非常に悪化しました。

慰安婦問題は日本の吉田清治という詐欺師の嘘から始まり、日本の左翼勢力と韓国内の親北反日市民団体がどんどん膨らまして作り上げた壮大なフィクションです。ところが現在使われている日本の教科書にも「日本は占領地や植民地の女性を慰安婦として強制的に戦場に送った」という嘘が書かれています。なぜこ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日本の教科書は韓国と同じように民間の会社が制作し、これを文部科学省が検定します。検定に合格した教科書の中から、どの教科書を採用するかは、多くの場合、現場で教えている教師の意見によって決まります。

ところが日本の学校の教育現場は日本教職員組合（略して日教組）という、親北朝鮮、親中国の左翼団体が牛耳っています。従って、教科書会社が自社の教科書売り込むた

めには、日教組の教師に気に入ってもらわね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教科書会社は、親北朝鮮、親中国の左翼学者に教科書の執筆を依頼します。

このような左翼学者は、日本を貶めて子供たちに日本人としての誇り（自負心）を持たせないように、そして自由民主主義の理念を共有する日本と韓国が手を握らないように、あらゆる嘘を教科書に書きます。こうして出来上がった教科書を文部科学省が検定しますが、文部科学省にも上層部から末端に至るまで、親北朝鮮、親中国派が占めています。

例えば文部科学省の歴史教科書検定チームの主任を三年前まで勤めていた中前吾郎（なかまえ・ごろう）という人物は毛沢東研究の第一人者であり、毛沢東を礼賛する本を書いています。日本の週刊誌は、中前吾郎には北朝鮮の工作員の疑いがあることを暴露しましたが、彼は今でも教科書検定官に留まっています。文部科学省は中前吾郎のような、北朝鮮や中国を信奉する左翼の人物を教科書検定官に選んでいるのです。

彼らは子供たちに日本人としての誇り（自負心）を持たせるような教科書は不合格にしてしまいます。逆に「日本は韓国の多くの女性を強制連行して慰安婦にした」というような嘘が書いてあれば、これで日本を貶めることが出来る、さらに日本と韓国を対立させることが出来ると考えて、喜んで合格させることとなります。そして日教組の教師がそのような嘘で満たされた教科書を選んで、現場で使用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しかしこのような教科書は、日本人の誇りを深く傷つけるばかりか、韓国の皆さんの民族の誇りも大きく傷つけることとなります。もし多くの朝鮮の女性が日本の官憲に強制連行されて慰安婦にされたのが事実であれば、たちまち朝鮮半島中で抵抗運動が起きたはずですが、ところが抵抗運動は一件も記録にありません。ならば朝鮮の男たちは、自分たちの娘が、妹が、恋人が、目の前で強制連行されても、黙って見送っていた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慰安婦強制連行が事実だと書いている日本の教科書は、皆さんの祖先をそのような「不甲斐ない人々」だったと貶めているわけです。とんでもありませんね。

では実際はどうだったのでしょうか。ここで1938年の韓国の新聞記事をご紹介します。

資料1 まずこれをご覧ください。1933年6月30日付東亜日報の見出しです。

「路上で少女掠奪、醜業中人に売渡 売り払った男女検挙 判明した誘引魔手段」

上海(中国)の「誘引魔」が、路上で少女を掠奪し、醜業中人に売渡して、その利益を享受する。この誘引魔の手段は、上海の「誘引魔」が、路上で少女を掠奪し、醜業中人に売渡して、その利益を享受する。この誘引魔の手段は、上海の「誘引魔」が、路上で少女を掠奪し、醜業中人に売渡して、その利益を享受する。

**路上에서少女掠取
醜業中人에賣渡**
 ◇金神通 팔아먹은 男女檢挙
判明된誘引魔手段

写真② 路上で誘拐した少女を中国人に売り渡していた事件を報じる「東亜日報」1933年6月30日付

資料2 次はこれです。1938年12月4日付東亜日報です。見出しにこうあります。

「良家の処女を誘引して満州に売却騙財 釜山署で犯人逮捕」満州とは今の中国東北地方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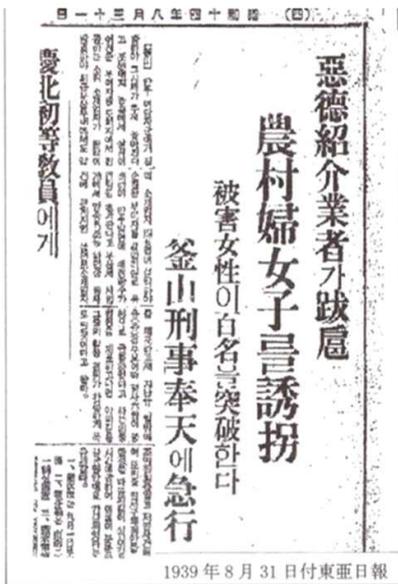
**良家處女誘引해서
滿州로賣却騙財**
釜山署、犯人을逮捕

【釜山】 釜山에서 誘引해서 滿州로 賣却한 犯人을 釜山署에서 逮捕했다. 이 犯人은 釜山에서 誘引해서 滿州로 賣却한 犯人을 釜山署에서 逮捕했다. 이 犯人은 釜山에서 誘引해서 滿州로 賣却한 犯人을 釜山署에서 逮捕했다.

写真④ 旅館に泊まっていた少女二人を誘拐して売り飛ばそうとしていた犯人を逮捕(「東亜日報」1938年12月4日付)

資料3 次はこれです。1939年8月31日付東亜日報です。見出しにこうあります。

「悪徳紹介業者が跋扈、農村婦女子を誘拐 被害女性が百名を突破する、釜山刑事奉天に急行」奉天とは今の中国の瀋陽です。



資料4 次はこれです。これは1939年3月15日付の東亜日報です。見出し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河允明 (하윤명) 誘拐事件波紋拡大。悪辣な遊廓業者。警察の救出を念慮。続々外国に転売。人事紹介所に検察のメス。特別調査隊編成内探」



どうですか。当時は悪辣な遊郭業者たちが、或いは誘拐魔が、多くの良家の子女や農村の婦女子を誘拐して中国に売り飛ばされていたのです。そしてそれを救出していたのが日本の警察でした。

その実態をこの記事が詳しく書いていますので、その内容を読んでみましょう。

資料5 これは1938年3月28日の東亜日報です。見出しに五十餘處女を誘引 北支、満洲に大部隊で賣喫 養女にすると白紙委任状を携えて犯罪敢行 第二の 河允明事件 拡大と書いてあります。

日八十二月三年四十和總 (一)

五十餘處女を誘引

北支、満洲に大部隊で賣喫

收養女을 한다고 白紙委任狀을 받아서 犯罪敢行

第二 河允明事件擴大

團長은 千家兄弟

西署에서 殘黨捕獲

救出된處女

自作農의 全 純小作

ではその中身を読んでみましょう。全部を読むと時間が足りませんので、重要な部分に下線を引いていますのでその部分のみをここでは読んでみます。全文は後程読んで下さい。

26日同署の金、関、石部刑事などが、千家兄弟が脱出し潜伏しているという仁川の某旅館を襲撃し、無事逮捕し、嚴重取り調べた結果、次のような罪状が續々判明し取り調べ警官を驚愕させている。

千順童は今から4年前、彼の従弟である千億萬の他、遠縁の親戚兄弟たちを京郷各地に

送り、貧しさに泣く、或いは虚栄に憧れる田舎の若い女性の父兄を訪ね、豪衣豪食の生活で勉強までさせ、後日適齢期に達したならソウル近辺に嫁に行かせてやるとか、或いはよい所に就職させるなど甘言を用いて、それらしく振る舞う同時に養女にするという白紙委任状と戸籍抄本、印鑑証明などを持ってやって来ては、女給または酌婦などに売却し、まだ年若い少女は下女にして虐待し、大きくなれば売春婦として人肉市場に回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巧妙な手段を用いる兄弟の毒手の犠牲となった少女または人妻は、現在同署に救出されたという裴錦順(19)李玉姫(16)たち15名の処女以外に、既に北支や満州或いは京都市内に売春婦として売られた婦女子が現在まで判明しただけで35名となり、今後どれだけ判明するかわからないと言う」

その下に「刑事隊は千順童の自白を取り京郷各地に散らばった誘拐便衣隊の大々的掃討戦を展開しつかまえるという」とあり、救出された女性たちの名前と年齢が書いてあります。

ここで提示しました新聞記事から分かるように、当時売春婦にするために少女が「強制連行」された事実は確かにありました。しかしそれをやったのは悪徳誘拐団でした。彼らはこのように少女やその親たちを巧妙な手口で騙して連れ出して、虐待して、売春婦として人肉市場に売却していたのです。そして売られた少女を、日本人警察官が韓国人警察官と力を合わせて救っていたのです。これこそが当時の実態でした。当時も今と同じ近代的法治国家でしたから当然でしょう。

最初に申しました通り、慰安婦強制連行は北朝鮮と韓国の反日市民団体、そして日本の左翼が日韓を仲違いさせるために作り出した嘘です。これに騙されて日韓が離反すれば北朝鮮や中国の思うつぼです。

日本と韓国は安全保障面でも経済面でも運命共同体なのです。日韓の教科書から「慰安婦強制連行」という嘘を無くし、日本人と韓国人の民族の誇りを取り戻しましょう。そして日韓が手をしっかりと握って、自由と民主主義を守り、アジアの素晴らしい未来を一緒に築きましょう。皆さんこれから力を合わせて頑張りましょう。

有難うございました。

《발표6》



金柄憲(國史教科書研究所長)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성균관 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원대학 강사. 독립기념관 전문위원 역임.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저서]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국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 『국역 사재집』. 『역주 이아주소』.

成均館大学校大学院漢文学科学士/修士/博士修了。東国大学校史学科博士修了。成均館大学校、中央大学校、慶元大学講師。独立記念館専門委員。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著書]『30年間の慰安婦歪んだ赤い水曜日』。『国史、このまま教えるのか』。『国訳思齋集』。『訳注爾雅註疏』。

発表6

한국 초중고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의 실태와 대책

韓国の小中高教科書における慰安婦記述の実態と対策

金柄憲 / 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

위안부서술실태 慰安婦記述の実態

수륙 교과서 収録教科書

초등학교 사회 5-2 11종 小学校社会5-2 11種

중학교 역사 7종 中学校歴史 7種

고등학교 한국사 9종 高校の韓国史 9種

모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서술

すべての教科書に慰安婦問題を記述。

위안부서술실태 慰安婦記述の実態

서술의 문제점 記述の問題点

1. 위안부에 대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慰安婦について偽りの情報を教えている。
2. 매춘부라는 성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売春婦という成人の領域を扱っている。
3.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다.
日本に対する漠然とした憎悪心を植え付けている。

위안부에 대한 거짓말 慰安婦についての嘘

小学校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집회란 무엇일까요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と水曜集とは何でしょうか？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가리킨다.

일제는 1931년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여성들을 전쟁터로 강제로 끌고 가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일제는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근무 내용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고, 협박과 폭력, 납치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初等社会5-2』 金英社, p.134 代表著者 모경환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가리킨다.

日本軍慰安婦は日帝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日本軍の性奴隷生活を強要された女性たちを指す。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일제는 1931년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여성들을 전쟁터로 강제로 끌고 가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日帝は1931年に中国を侵略し始めて以来、太平洋戦争で敗戦した1945年まで女性を戦場に強制的に連れて行き、持続的な性暴力を犯した。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일제는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근무 내용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고, 협박과 폭력, 납치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日帝は女性たちを日本軍慰安婦に動員するため、就職させてあげると騙したり、勤務内容を明確に知らせなかった募集広告を出したり、脅迫と暴力、拉致などの方式で強制的に引きずったりもした。〈初等社会5-2, 金英社, p.134〉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거짓 嘘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번 직업여성으로, 일본군의 동원대상도 일본군 성노예도 아니다. 慰安婦は女衞と契約を締結してお金を稼いだ職業女性で、日本軍の動員対象でも日本軍性奴隷でもない。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군인이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もし軍人が民間人を強制的に連れ去ったり、性暴力を犯したならば、これは重大な犯罪行為であり、処罰記録が残っていない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そのような証拠はない。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 慰安婦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 서류를 갖추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영업 허가를 얻어야 위안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취업사기, 허위 광고, 협박과 폭력, 남치 등의 방법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日本軍慰安婦は必要書類を備え、厳格な手続きを経て、営業許可を取得後に慰安婦生活ができた職業人であり、就職詐欺、虚偽広告、脅迫と暴力、拉致などの方法での就職自体が不可能だった。

中学校

현장 속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탈하다

중일 전쟁(1937)과 태평양 전쟁(1941)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 무기 재료를 빼앗아, 한국인의 삶을 어렵게 하였다. 지원방제와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전장으로 끌고 갔으며, 수산업, 명의 사람들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여자 장년 근로자를 내려 여성들마저 동원하였다.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큰 고통을 겪게 하였다.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전쟁 중 희생되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으로 전쟁 이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만 하였다. 그러나 강제 동원과 수탈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을 동원하였으며,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공출제를 실시하고 무기를 만듦을 위해 농기구와 제사 도구까지 빼앗았다.

日帝が侵略戦争に必要なすべてを収奪する。



①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한국 여성들

『歴史』 飛翔, p.188 代表著者 이병인

정신대와 위안부挺身隊と慰安婦

그리고 여자정신근로령을 내려 여성들마저 동원하였는데,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큰 고통을 겪게 하였다.

そして女子挺身勤勞令を下し、女性たちまで動員したが、多くの女性たちを日本軍慰安婦として連れて行き大きな苦痛を経験させた。

정신대와 위안부挺身隊と慰安婦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전쟁 중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으로 전쟁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強制的に動員された韓国人のほとんどは戦争中に犠牲となり、生き残った人々はその後遺症で戦後精神的・肉体的苦痛を強いられた。

정신대와 위안부挺身隊と慰安婦

거짓 嘘

공장 근로자였던 정신대와 성매매여성인 위안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여자정신근로령'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를 시킨 사실도 없다.

工場労働者だった挺身隊と売春女性だった慰安婦は全く違う。そして朝鮮では「女子挺身勤勞令」が実行されず、挺身隊として連れて行かれ慰安婦となった事例もない。

정신대와 위안부挺身隊と慰安婦

거짓 嘘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희생되지도 않았다. 모두 거짓이다.

日本軍慰安婦は強制的に動員されなかつただけでなく、戦争中に犠牲にもならなかつた。すべて嘘だ。

日帝が慰安婦を強制動員する

●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운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만주 사변 당시부터 일본군은 전쟁터에서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일본군은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 관헌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포박자들이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후방의 병참 지원 인력으로 동원하였다. 이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 '위안부'는 연약한 환경 속에서 인권을 유린을 당하다가 질병이나 폭행으로 죽기도 하였다.



↑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 | 색동옷을 입고 외롭지 않도록 빈의 자에는 강아지 인형을 놓아두었다.

高等学校

『韓国史』, 리베르 리어벨, p.209. 代表著者 이익주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어벨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日帝が侵略戦争を遂行しながら犯した最も反人倫的な犯罪行為は、女性を戦争に強制動員したことだっ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어벨

일본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日本軍は朝鮮をはじめ中国、東南アジアなどで、数十万人の若い女性を日本軍慰安婦として強制的に連れだして性奴隷生活を強要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어벨

일본 관헌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였다.

日本の官憲が関与する中、日本軍は数多くの女性を拉致したり誘拐したりして、日本軍慰安婦として動員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ーベル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모집책들이 취업 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日本軍の指示を受けた民間募集業者が、就職詐欺、人身売買など、不法な方法を動員して女性を日本軍慰安婦に連れて行ったりしま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ーベル

1944년에는 **여지정신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후방의 병참 지원 인력으로 동원하였다.

1944年には女子挺身勤労令を公布し、12歳以上40歳未満の女性を後方の兵站支援人材として動員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ーベル

이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この時、挺身隊という名前で強制徴発された人々の多くが日本軍「慰安婦」として連行された。〈p. 209〉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리베르 리ーベル

일본군 위안부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다가 질병이나 폭행으로 죽기도 하였다.

日本軍慰安婦は、劣悪な環境の中で人權を蹂躪され、病気や暴行で死んだりもしました。〈p. 209〉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일본군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포주와 작부(창기)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비자에 해당) 발급을 신청 - 건강진단서 제출. 日本軍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砲主と酌婦(娼妓)契約を締結した後、管轄警察署に直接出頭し、身分証明書(ビザに該当)の発給を申請—健康診断書を提出。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작부계약 체결과 관할경찰서 출두 시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출국 가능. 酌婦契約の締結と管轄警察署に出頭する際、親権者の承諾は必須。身分証明書が発給されれば出国可能。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현지에 도착한 후 영사관경찰서에 출두하여 인감증명서,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영입허가원서, 영입인조서서, 現地に到着後、領事館警察署に出頭し、印鑑証明書、親権者承諾書、戸籍謄本、営業許可願書、営業人調査書、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얻으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입이 가능. 写真2枚を提出し、営業許可を申請して許可がおりれば、その時から慰安婦営業が可能。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환 조치될 수 있음.
書類を備えていなければ帰還措置できない。

일본군위안부는 영사관 경찰의 허가를 얻은 다음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영업을 하는 공창.

日本軍慰安婦は領事館警察の許可を得た後、日本軍の管理監督を受けて営業をする公娼。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이에 따르면 리베르의 서술 오류는 다음과 같다

リーベル教科書の記述ミスは以下の通りである

일제는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

日帝は慰安婦を強制的に引きずったことがない。

수십만이 강제로 끌려갔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もし数十万人の女性が強制的に動員されたとすれば、暴動が起きていたはずだ。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관헌에 의한 납치나 유괴의 증거가 없다.
官憲による拉致や誘拐の証拠がない。

일본군은 위안부 모집책에게 지시할 수 없다.

日本軍は慰安婦募集人に指示できない。

조선여인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발된 적이 없다.

朝鮮人女性は挺身隊という名前で徴発されたことがない。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이처럼, 리베르 교과서의 서술은 모두 거짓이다.

このように、リーベル教科書の記述はすべて嘘だ。

더구나, 모든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리베르 교과서와 대동소이하다.

しかも、すべての教科書の慰安婦記述はリーベル教科書と大同小異だ。

高等学校

원칙적으로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도시 거주자, 5 국민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었다. 동원된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군수 공장 등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강제 노역을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한편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공필이 일상화되다

『韓国史』, 東亞出版, p.195. 代表著者 노대환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동아출판 東亞出版

한편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一方、日帝は軍慰安所を設置し、敗戦時まで韓国をはじめ植民地と占領地の女性たちを日本軍慰安婦に動員して恐ろしい生活を強要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동아출판 東亞出版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被害者たちは殴打や拷問、性暴力などで一生治癒しにくい苦痛の中で生きなければならず、一部は反人倫的犯罪を隠蔽しようとする日本軍により虐殺されたりも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위안부 판결문 慰安婦 判決文

위안부 **학살** 주장은 2021. 1. 8. 위안부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2016가합505092〉에도 등장한다.

慰安婦虐殺の主張は、2021.1.8.慰安婦損害賠償請求訴訟判決文にも登場する。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위안부 판결문 慰安婦 判決文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일본군이 직접 추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 <2016기합505092>

「慰安婦が逃走する場合、日本軍が直接追撃して逃走した慰安婦を再び慰安所に連れ去ったり、射殺したりもした。」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위안부 판결문 慰安婦 判決文

이에 대하여 외교부에 **학살**된 위안부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これに対して私は、韓国外交部に虐殺された慰安婦に関する情報があれば公開してほしいという請求をしました。(2022. 6. 6.)

고등학교 교과서 高等学校教科書

위안부 판결문 慰安婦 判決文

외교부의 답변은 ‘정보부존재’ 였다. 학살당한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과서도 판결문도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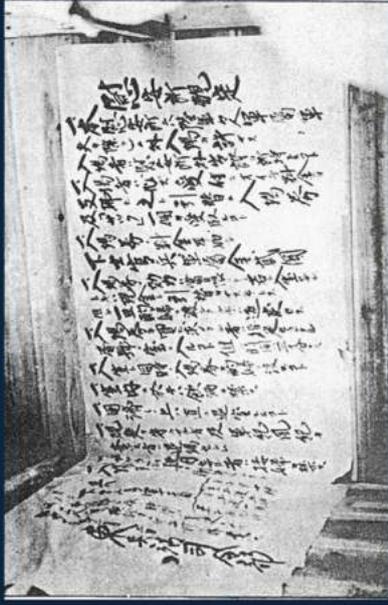
外交部の回答は「情報不存在」でした。虐殺された慰安婦が存在しないという意味です。教科書も判決文もすべて嘘をついたのです。

위안부는 성인 영역

慰安婦は成人の領域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위안소 규정 慰安所規定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위안소 규정 慰安所規定

- 입장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과 삿쿠(콘돔) 1개를 수령한다.
- 入場者は料金を支払って入場券とサック(コンドーム) 1個を受け取る。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위안소 규정 慰安所規定

- 실내에서는 음주를 금한다.
- 室内では飲酒を禁じる。
-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와 군기/풍기를 문란 시킨 자는 퇴장 시킨다.
- 規定を守らない者と軍紀/風紀を乱す者は退場させる。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위안소 규정 慰安所規定

- 삿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접부를 금한다.
- サックを使用しない者は接婦を禁じる。
- 입장권 금액은 왼쪽과 같다. - 하사관, 병, 군속 2원.
- 入場券の金額は左側の通り。- 下士官、兵、軍属2円。

일본군 위안부 日本軍慰安婦

위안소 규정 慰安所規定 - 料金表

区分	遊興時間	利用時間(分)	料金(円)
兵士	10:00~17:00	30	1.5
下士官	17:00~21:00	40	2
將校	21:00~24:00	50	3
	宿泊	宿泊	8

出所 : Mandalay 駐屯地慰安所規定, 1943. 5. 26.

일본에 대한 증오심 조장

日本に対する憎悪心を助長

증오심 조장 憎悪心を助長

위안부의 피해 慰安婦の被害

강제 동원, 강제연행, 일본군 성노예
 強制動員、強制連行、日本軍性奴隷強要
 납치와 유괴, 취업사기, 인신매매
 拉致と誘拐、就職詐欺、人身売買
 구타, 고문, 폭행, 학살
 慰安婦 殴打、拷問、暴行、虐殺

증오심 조장 憎悪心を助長

위안부의 피해 慰安婦の被害

교과서에 서술된 위안부 피해의 가해자를
 教科書に述べられている慰安婦被害の加害者を
 일본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日本軍だと指摘している。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しかし、これはすべて嘘だ。

증오심 조장 憎惡心を助長

위안부의 피해 慰安婦の被害

이처럼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조장하는가 하면

このように教科書の慰安婦記述は、子供たちに日本に対する漠然とした憎惡心を助長する一方で、

성인 영역인 매춘부를 가르치고 있다.

成人の領域である売春婦に関して教えている。

대책

対策

대책 対策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거짓과 증오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심성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成長する未来世代に偽りと憎惡を教えることは、子どもたちの心性を荒廃させるだけでなく、韓日間の葛藤と対立の種をまくことに他ならない。

대책 対策

이러한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비교육적 서술이기 때문에 위안부 서술 전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このような教科書の慰安婦記述は、一部を修正したからといって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どちらから見ても非教育的な記述であるため、慰安婦記述の全体を削除しなければならぬ。それが唯一の解決策だ。